

석사학위논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팜 투 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윤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nunciation Textbook for Vietnamese Students

2024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팜 투 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윤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nunciation Textbook for Vietnamese Student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팜 투 짱

팜투짱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 은 희 (인)

심 사 위 원 김 윤 주 (인)

심 사 위 원 임 형 모 (인)

국 문 초 록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팜 투 짱

본 연구는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관련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한 후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발음 교육 관련 서적에 연구를 통해 발음과 관련된 이론, 발음 교육, 한국어 발음 교육을 제시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재 내 발음 규칙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여 이를 항목화한 뒤 3·4장 연구 내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두 언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였다. 비교 순서는 두 언어의 모음, 자음, 음절, 음운규칙

등이었다.

제4장에서는 교재 분석 결과 및 학습자 요구분석, 초급 학습자 오류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국내 주요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어 통합교재와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출판한 통합교재와 발음 교재를 대상으로, 발음 규칙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3가지 통합 교재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외에 발음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을 살펴보았다. 발음 교재는 발음에 집중하여 만든 전문 교재이므로, 이 안에 담겨 있는 발음 영약, 음운체계, 발음 규칙, 순서와 구성, 연습 유형, 등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진행하였고 베트남인 초급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발음 교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이론과 3,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교재 개발 원리, 발음 교재 내용 구성에 관한 개발 방안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앞에 논의하는 것을 요약 및 정리를 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맞는 발음 교재 개발을 위해 발음 교재를 분석하고,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교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발음교육, 한국어 발음, 비교분석, 오류분석, 교재 개발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필요성 및 목차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2.1 한국어 발음 교육	2
1.2.2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6
1.2.3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관련 연구	8
1.3 연구 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2
2.1 한국어 발음 교육	12
2.2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14
2.3 한국어 음운 규칙 교육 방법	17
II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비교	19
3.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모음체계 비교	19
3.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체계 비교	21
3.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비교	27
3.4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규칙 비교	32
IV. 교재, 요구분석 및 발음 오류 실험	43
4.1 한국어 교재 분석	43

4.1.1 분석 대상 선정	43
4.1.2 교재 분석 기준	44
4.1.3 교재 분석 결과	46
4.2 베트남 학습자의 요구분석	67
4.2.1 설문 조사 대상 및 방법	67
4.2.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68
4.3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실험	82
4.3.1 실험 대상 및 방법	82
4.3.2 실험 결과	83
4.3.2 실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86
V.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87
5.1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의 방향	87
5.1.1 교재 개발 원리	87
5.1.2 발음 교재 내용 구성에 관한 개발 방향	88
5.2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재의 내용	89
5.2.1 교수요목 설계	89
5.2.2. 단원의 실제	91
VI. 결 론	98
참 고 문 헌	100
부 록	103
ABSTRACT	110

표 목 차

〈표 1〉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19
〈표 2〉 한국어의 이중모음	20
〈표 3〉 베트남어의 모음체계	21
〈표 4〉 한국어 자음 체계	22
〈표 5〉 베트남어 자음 체계	25
〈표 6〉 한국어의 자음과 베트남어의 자음	26
〈표 7〉 한국어의 음절구조	28
〈표 8〉 한국어 음절구조의 유형	28
〈표 9〉 베트남어의 음절구조	29
〈표 10〉 베트남어 음절구조의 유형	30
〈표 11〉 한국어의 음운규칙	32
〈표 12〉 교재 분석 기준	46
〈표 13〉 교재 단원 구성 순서	47
〈표 14〉 교재에 있는 음운체계 비교 분석	55
〈표 15〉 교재에 있는 음운규칙 내용 및 제시 순서 비교	57
〈표 16〉 교재에 있는 연습 유형 비교	62
〈표 17〉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	67
〈표 18〉 베트남인 초급 실험자의 정보	82
〈표 19〉 초급 학습자의 인지 실험 오류 유형	84
〈표 20〉 초급 학습자의 발음 실험 문항	85
〈표 21〉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목차예시	90

그 립 목 차

〈그림 1〉 『서울대 한국어』 발음영역 구성의 실제	48
〈그림 2〉 『재미있는 한국어』 발음 영역 구성의 실제	50
〈그림 3〉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발음영역 구성의 실제	52
〈그림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발음 영역 구성의 실제	54
〈그림 5〉 『서울대 한국어』 발음 규칙 제시 설명	58
〈그림 6〉 『재미있는 한국어』 발음 규칙 제시 설명	59
〈그림 7〉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발음 규칙 제시 설명	60
〈그림 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발음 규칙 제시 설명	61
〈그림 9〉 『서울대 한국어』 연습 유형 실제	63
〈그림 10〉 『재미있는 한국어』 연습 유형 실제	64
〈그림 11〉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연습 유형 실제	64
〈그림 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연습 유형 실제	65
〈그림 13〉 한국어 발음 접근 조사에 관한 응답률	69
〈그림 14〉 한국어 발음의 만족도에 관한 응답률	69
〈그림 15〉 한국어 발음 연습 시간에 관한 조사	70
〈그림 16〉 학습자의 발음 연습 방법	71
〈그림 17〉 한국어 발음의 어려운 부분의 분포	72
〈그림 18〉 학습자의 발음 오류 평가	73
〈그림 19〉 발음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자료	74
〈그림 20〉 온라인 자료 접근한 매체	75
〈그림 21〉 발음 자료 만족도와 이유	75
〈그림 2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의 필요성과 이유	77
〈그림 23〉 한국어 발음 교재의 선호하는 방법	79

〈그림 24〉 한국어 발음 교재의 교정하는 내용	80
〈그림 25〉 한국어 발음의 시청각 자료	80
〈그림 26〉 초급 학습자의 평음, 경음, 격음 발음 정답률	84
〈그림 27〉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전체적 구성	91
〈그림 28〉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단원 구성	91
〈그림 29〉 13단원의 ‘학습 목표’와 ‘제시 설명’ 부분 실제	92
〈그림 30〉 13단원의 ‘확인’과 ‘연습’ 부분 실제	93
〈그림 31〉 13단원의 ‘추가’와 ‘정리’ 부분 실제	94
〈그림 32〉 23단원의 ‘학습 목표’와 ‘제시 설명’ 부분 실제	95
〈그림 33〉 23단원의 ‘확인’과 ‘연습’ 부분 실제	96
〈그림 34〉 23단원의 ‘추가’와 ‘정리’ 부분 실제	97

I.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발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히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말하고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베트남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주의해야 할 발음 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베트남인을 위한 특히 어렵고 자주 실수하는 한국어 발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법이나 어휘에 뛰어난 학습자라 하더라도 발음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발음은 언어의 첫인상과 같아서 외국어의 발음이 유창한 학습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주는 반면, 발음이 좋지 않은 학습자는 다른 언어 능력에 상관없이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모든 언어학습의 목적은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하고 편안한 발음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학습의 기본적인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¹⁾

외국어 학습에서 실제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발음이다. 하지만 발음은 많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어는 많은 경우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쓰여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한국어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단어의 위치에 따라 같은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된다. 그래서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하고, 많은 오류를 겪는다. 이는 말하기 뿐만 아니라 듣기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나 빠르게

1) 정소영(2018:2)에서 참고

진행되는 문장을 들으면 글자를 추측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발음 규칙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어 발음을 학습하는 데에 발음 규칙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각 발음 규칙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발표 방법을 선정하여 위계적으로 배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현재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발음 규칙 교육이 이뤄지는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음을 듣거나 CD를 듣고 읽기 어려운 부분을 따라가거나, 선생님이 단순히 교과서에 수록된 발음 규칙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의 발음 규칙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발음 규칙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과 음절 구조만 소개하는 반면, 발음 규칙 교과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규칙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 교육은 단지 추가적인 독해로만 간주될 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더불어 한국어 선생님이 단순히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발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라고 하더라도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 차이로 인한 학습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발음 규칙이 위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된 베트남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1.2.1. 한국어 발음 교육 및 한국어 발음 규칙 교육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법 및 어휘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어 발음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과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는 김선정(1999), 양순임(2004), 김정옥(2009), 김보람(2016) 등이 있다.

김선정(1999)에서는 발음이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어의 음절 구조 특성을 비교하면서 영어 화자에게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두 언어를 대조 분석한 위 연구는 영어과 한국어 발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운 현상을 바탕으로 영어권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어 습득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양순임(2004)은 ‘발음’에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도 포함해야 한다며, 음성, 음절, 단어 수준 등의 층위로 구분하여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음성 수준에서는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수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영상과 음성 파일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청각 자료와 교사 시연을 제시하였다. 음절 수준에서는 전통적인 순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음 교육을 위한 음절표를 제시하였다.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초성과 종성 목록이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 순서로는 쉽고 공통적인 발음으로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이해하기 쉬운 순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단어 수준에서는 단어 선택 조건과 교육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한국어 초성에 대한 발음 및 인식 교육 방안과 시청각 자료는 정확한 발음과 인식, 오류 교정에 유용하나 직접적인 오류 분석 없이 선행 연구만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종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김정옥(2009)에서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체계를 대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에 활용하였다. 한국어 발음 학습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대조언어학을 통해 이미 나타난 오류를 파악하였으며, 정확한 한국어 모음 발음을 유도하기 위해 조음 음성 설명을 통한 발음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과 최소 대립어를 이용한 발음 실습을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보람(2016)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체계와 음절 구조 및 자음 연쇄에 의

한 음운 변동은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음 연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발음 오류 제시하였다. 자음 연쇄로 인한 음운 변동을 조사하기 위해 위 연구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들 실제 발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국인 학습자는 장애음 또는 유성음을 비음으로, 비음을 유음으로, 평음을 경음으로,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하는 데에서 오류를 보였다. 태국인 학습자는 특히 장애음이나 유성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비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위 연구에서는 태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위해 PPP모형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발음 교육을 제시하였다.

후 지아루(2015)에서는 북경 표준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한국어 발음 교수법을 사용하여, 사천 방언을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천 방언을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원인과 조음 위치, 혀의 앞뒤, 선행 단모음과 후행 자음에 따른 종성 발음의 차이를 인식을 분석하여 지각 능력과 발음 교육 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그 상호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발음 교육의 목표와 한국어 종성 제시 기준을 밝히고, 학습자의 지각과 수행 관계 양상을 반영하여 '도입-제시와 이해-지각-수행과 교정-사용'의 5단계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발음 교육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히 사천 방언을 고려하여 발음에 특화된 지각 훈련과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지각 범주를 시각화하는 자료 분석 방법을 고안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발음 교육적 관점에서 특히 사천 방언을 고려하여 발음에 특화된 지각 훈련과 산출 수업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 지각 범주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을 고안하고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신정애(2004)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특정 언어 영역에서만 발음 교육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베트남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음 교육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 연구는 베트남어의 음운체계와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베트남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발음을 가

르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연구는 거의 처음이며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강정희(2009)에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체계, 음절 체계, 음운 규칙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오류를 제시하였다. 예측 가능한 발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인식 실험과 음성 실험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인지 실험과 음성 실험을 통해 베트남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음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자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한국어 음운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발음 규칙 교육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이월일(2005), 박정은·이은주(2008), 박성희(2016), 염선정(2017), 최정선(2020) 등이 있다. 발음규칙은 한국어 발음 교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교재에 발음규칙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교재 개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월일(2005)는 한국어 음운규칙이 영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음운규칙이 종류에 따라 영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한국어 음운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음군과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자음군에는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은·이은주(2008)는 음운규칙을 가르칠 때 가급적 용어 사용과 규칙 설명을 피하고, 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음화와 같은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한 단원에서 설명을 마무리하는 대신 필수적인 상황 및 수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등으로 단원을 분할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 음운규칙을 여러 단원으로 나누어 가르칠 때는 반드시 난이도와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성희(2016)의 연구는 발음규칙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꾸준한 반복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대학의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제시되는 음운 변동 규칙을 비교 및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음운 변동 규칙의 순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염선정(2017)은 한국어 통합 교재의 음운 규칙 교육 내용 연구하였다. 발음 규칙의 교육 방안은 형식적 구성 방안과 내용적 구성 방안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형식적 구성 방안’으로는 먼저, 전체적인 단계를 초급에서 고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된 영역은 나선형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제시-설명-연습’의 3단계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적 구성 방안’으로는 먼저, 음운 규칙 교육 내용의 ‘주제화’ 제시하고 음운 규칙 교육 내용이 일치하도록 구성한 후 ‘운율, 음운, 단어, 음운구’ 순으로 음운규칙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정선(2020)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규칙 적용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음운규칙 적용 정도와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음 교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음운규칙 적용 오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초성 자음의 발음 정확도, 연음화의 실현, 그리고 무의미한 단어를 활용한 음운규칙 적용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에서 음운규칙 내재화를 강조하고, 연음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1.2.2.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의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와 다음은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강정희(2009), 김희정(2009), 박지영(2010), 김영옥(2012)의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파찰음 '즈,츠,쯔'와 마찰음인 '스,쯔'를 구별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를 구별하지 못 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하지 못 했다.

Hua Nguyen Minh Thao(2018)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 오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응웬비타오짱(2021)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자음 중 평폐쇄음의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하고 베트남인을 위한 어두 평폐쇄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를 발음할 때 오류를 확인하고 음운 특징을 고려하여 베트남어 성조를 활용한 어두 평폐쇄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응웬티타잉화(2021)의 연구는 베트남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와 원인을 분석하여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연음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연음은 다른 음운 규칙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는다고 하며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음절을 분할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연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하성(2022)는 실시간 원격 교육의 환경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에는 종성의 유음에 주목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 모양의 선명도, 입 모양의 각도, 그리고 학습자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수 모형을 설계하였다.

응웬티반안(2021)는 베트남 출신 한국어 학습자들의 현재 상황과 발음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발음 교육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북부와 남부 지역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차이에 따른 베트남어와 한국어 간의 공통된 발음과 베트남어에 없는 한국어 발음을 구분하여 한국어 발음에 대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응위엔 꾸인 느 휘엔(2023)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비음화와 유음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음화와 유음화 발음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 음운적 대조 분석 및 음성학

적 실험을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기에만 그치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한계점을 보완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인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성화(2023)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겹받침 발음 오류 조사하였고, 오류 양상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학습자들이 겹받침을 발음할 때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겹받침 관련 발음에서 겪는 특정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3.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관련 연구

한국어 발음 교재를 분석하거나 교재 분석을 통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다수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오선화(2012)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의 발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에게 중국어 학습자의 발음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발음 교육 항목과 순서를 제시하였다.

박정은과 이주희(2008)는 국내 대학 세 곳의 한국어 발음 교재의 특징을 분석하여 교재별 보완점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어 발음 교재 대부분이 시청각 자료 및 발음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현정(2013)은 초급 국어 종합 교재의 발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음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재의 분석은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발음 교육의 내용은 이효숙(2012)과 허유라 외(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 교과서 5종 중 2종은 현재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구 교재라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윤정기(2011)는 음운 규칙을 중심으로 통합 국어 교과서 5종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교과서별 특성과 문제점을 교수법과 교수 내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교수법 측면에서는 교수 능력, 독립 학습 가능성, 통합 교수 가능성, 연습 문제 제시, 음운 규칙 적용 단위, 제시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세부 항목으로 연속성, 채점, 학습량 분포, 음운 규칙 발음 항목, 발음 표기 변형 등을 다루었다.

정소영(2018)은 국내 주요 대학에서 개발한 5종의 통합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발음 규칙과 구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교재별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재 한국어 수업에서는 발음 교육, 특히 발음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 규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행 통합 교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여 대부분의 한국어 수업에서 기본서로 활용되고 있는 통합 교재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발음 규칙 교육 내용을 만들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성희(2010)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발음을 대한 대조 분석하여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을 예측한 후, 실제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특정 발음의 인지 여부와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가 어려워하는 발음 교육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이세미(2020)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반영한 교재는 초급 학습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대조 분석 및 학습자 요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발음 교재는 자음과 삼중 대립 관계, 연음 현상을, 어휘 교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공통적으로 한자어를 쓴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휘 목록, 문법 교재는 조사와 시제 어미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자 유형에 따른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어 발음을 별도의 섹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교육과정의 주요 부분으로 강조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연구는 대부분이 수업 모형을 해결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발음 교재의 개선이

나 교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연구는 어휘,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발음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특히 민상희(2010)이 있었는데 이 연구도 일반 학습자가 아닌 여성 결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외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음으로 겪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현황에서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발음 대조 연구를 하여 교재에 있는 발음 부분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 초급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다.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설문 조사 내용을 통해 파악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발음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며 개발될 교재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기존 교재들 간에 비교하고 분석하여 교재 개발 시 내용 구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교재 내용 구성 측면에서의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발음 교육내용은 한국어 통합교재와 발음 교재에서 언급한 발음 영역, 규칙과 순서, 방법, 등과 같은 연습 유형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라고 본다. 그러한 단계들을 걸쳐 통합적으로 분석한 후 교재 개발 방안을 잡고 제시하고자 할 것

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의 실재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발음 교육 관련 서적에 연구를 통해 발음과 관련된 이론, 발음 교육, 한국어 발음 교육을 제시 방법을 정리한다. 또한,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재 내 발음 규칙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여 이를 항목화한 뒤 3·4장 연구 내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3장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두 언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한다. 비교 순서는 두 언어의 모음, 자음, 음절, 음운규칙 등이다.

4장에서는 국내 주요 대학에서 개발한 통합 교재 2종(『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출판한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종합교재 1종『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을 발음 영역, 음운체계, 발음 규칙, 순서와 구성, 연습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의 요구분석과 베트남인 초급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이론과 3,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교재 개발 원리, 발음 교재 내용 구성에 관한 개발 방안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앞에 논의하는 것을 요약 및 정리를 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발음 교육

발음이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언어학습에서 발음은 매우 중요하다. 발음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지만 교수 학습 활동에서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발음의 오류를 겪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제2언어 발음 교육에서는 원어민과 같은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원어민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중요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은 학습자가 실제로 모어 화자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현화, 박지순, 박수연, 홍혜란, 장채린, 2022:127).

즉, 한국어 어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 원어민이 유창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발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발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 과정 초기에 습득해야 하며, 발음 실력이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김미형(2019:5)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발음 교육은 명료하게 표현하고 의사소통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발음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국어를 모국인과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목적을 정확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발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발음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발음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에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까지 매 과정마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음 습관은 학습 초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발음법이 강조되어야 한다. 잘못된 굳어져 버린 발음 습관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선정, 1999).

박기영, 이정민 (2019:13)는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가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것은 그 언어의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 아무리 언어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대화를 못 할 가능성이 많다. 또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언어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발음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외국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발음이 좋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커지고 외국어 능력의 유창성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문법이나 어휘력, 듣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사소통의 일차적인 수단은 발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발음 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의 핵심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필요하다. 잘못된 발음은 화자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틀리게 할 수 있다.

언어교육에서 발음을 교육할 필요성 때문에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음 교육에서의 주요 교수법²⁾은 전통적으로 문자 언어를 중요하게 다룬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정확한 발음 습득을 중요하게 다루어 모델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직접교수법(Direct Method), 언어 학습을 모방과 반복에 의한 습관형성으로 보는 청각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언어학습을 규칙에 제약을 받는 행동으로 보는 인지주의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 몸의 움직임을 통한 교수법 인전신 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이 있다. 박기영, 이정민 (2019:15)는 현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방식과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주된 교육 방법이던 최소 대립쌍을 이용하여 목표어의 자음과 모음을 연습하는 것은 여전히 발음 수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단순히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좀 더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적인 활동으로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모국어 화자와 같은 수준의 정확성을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고 의사소통에서의 이해명료성에 초점을 둌으로써 자음과 모음이 아닌 강세나

2) 신예주(2019:22)에서 인용.

억양 등 초분절적인 요소가 발음 교육에서 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교수법들은 주로 영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국어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010)에서는 발음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발음 교육의 목표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자모 중심의 음가, 음절 구조, 기초적인 음운 변화 등을 다룬다. 중고급에서는 본격적으로 초분절적 요소인 억양, 어조, 발화 속도, 휴지 등을 다루며 그 목표가 방언 이해로까지 확대되고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재이다. 그렇다면 발음 교재를 개발할 때 방향으로 삼을 만한 원리³⁾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음 교육 항목은 난이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배열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언어를 고려하여 음운체계에 대한 대조 언어학적 관점에서 발음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발음 교육의 모형에 맞게 단원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입 모양과 구강 구조의 그림, 사진 및 동영상, 모바일 앱 등의 보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의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한국어 발음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외국어로서 발음을 잘 학습하기 위한 위에 요소가 제시된 교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2.2.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어 발음 교육은 대학교의 실시간과 자습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웬비타오짱(2021)에서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발음 교육을 분석하였다.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발음 수업은 일반적으로 첫주에 진행된다. 발음 수업은 하루에 4시

3) 강현화 외(2022:127)에서 인용

간씩 5일에 걸쳐 총 20시간 동안 진행된다.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발음 수업도 첫주에 진행되지만 수업 시수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U 대학은 하루 3시간, 5일에 걸쳐 총 15시간 동안, H 대학은 하루 4시간, 2일에 걸쳐 총 8시간 동안 발음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어 학교의 발음 수업 수와 비교해 볼 때 베트남 대학의 발음 수업 수는 평균적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베트남 대학의 발음 교육 과정 설계의 체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어학당의 발음 교육에 비해 베트남 대학교의 한국어 발음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다.

게다가, 발음 교재는 보통 통합 한국어 교재에 통합되기 때문에 발음 능력만을 위한 교재는 많지 않다. 또한 현재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한국어 발음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는 한국어 발음 연습에 대한 영상매체가 포함된다. 이 콘텐츠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동영상을 통한 발음 교육 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교육을 위한 비디오 사용도 적절하게 개발되고 내용이 명확하게 조정된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지금까지의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들은 주로 말소리 체계 대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예측하였다. 그 후, 오류가 예측된 발음의 지각과 산출 양상을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살펴보거나 음향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평음, 경음, 격음에 대해서 정확한 조음 위치를 알려주고, 기식상 및 음높이를 활용하여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다.

선행 연구에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베트남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두 언어 사이의 자음, 모음, 음절에 대한 비교를 제시했다. 비교 결과에 따라서 학습자가 발음을 학습할 때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견한다.

첫째, 한국어 자음과 베트남어 자음의 발음 방법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국제 음성 알파벳을 기준으로 두 언어의 평음은 거의 차이가 없어 베트남어 학습자들은 평음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베트남어에는 평음, 시제, 격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듣거나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이 시제와 격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음 발음을 가르칠 때에도 격음과 격음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예를 만들고 발음 연습을 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어는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글자 그대로 발음되고 한국어처럼 복잡한 음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인 한국어 음절 구조의 영향으로 한국어 발음에 오류가 생기기 쉽게 범한다.

셋째, 자음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어의 폐쇄음은 전형적인 무기 무성음이기 때문에 베트남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폐쇄음과 베트남어 무기 무성 폐쇄음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베트남어 무기 무성 폐쇄음/p, t, ch, k/을 들으면 각각 한국어의 경음/ㅍ, ㅌ, ㅊ, ㅋ/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음과 평음의 발음을 교육할 때 한국어의 경음/ㅍ, ㅌ, ㅊ, ㅊ, ㅊ, ㅊ/을 각각 베트남어/p, t, k, ch, x/와 비슷한 음, 즉 대응되는 음으로 단순하게 제시하여 발음 교육을 진행할 때 평음과 경음의 차이를 인지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⁴⁾.

넷째, 베트남 학습자들도 한국어의 유음/ㄹ/의 발음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유음/ㄹ/을 발음할 때 피실험자들이 한국어의 어두음/ㄹ/[r]와 어중의/ㄹ/[l]을 베트남어 권설 마찰음[t]로 대체하여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모국어의 음운체계와 유사한 음으로 대체해 발음하려는 일반적인 현상에 기인한 결과이다.

마지막, 모음을 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기본 단모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쉽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쉽게 볼 수 있는 모음은 /ㅐ/와 /ㅓ/이다. 한국인도 이 두 모음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 교사가 말하기 수업을 해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발음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모음 /ㅐ/와 /ㅓ/가 포함된 단어를 이상한 철자로 쓰거나 헛갈려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모음을 가르칠 때 더 나은 수업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발음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정확한 조음 방법을 알려주고, 산출 연습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정순(2012)에서는 발음 교육의 최종 목적이 교사의 지도를 벗어나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발음을 지각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데까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평음, 경음, 격

4) 강정희(2009)에서 인용.

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지각 훈련을 통해 자신의 발음이 목표 말소리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단계를 산출 훈련 전에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발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음 교재를 만드는 것은 필수이다.

2.3. 한국어 음운규칙 교육 방법

이현아(2008)의 연구에서는 음운 변동 규칙의 교수 학습 순서를 제시하고 교수 학습 내용을 ‘따라하기-설명-연습 및 오류 교정-반복연습-정리’의 단계로 선정하였다. 김영선(2006)에서는 교수 학습 모형을 ‘듣기 단계-수용(인지 및 이해)단계-발성 단계-확인 및 교정 단계’로 설정하였고, 김형복(2006)의 연구는 ‘도입-오류 원인 제시 및 이해-오류 점검법 작성-오류 교정 연습 및 사용-마무리’의 단계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허유라, 박덕유(2012)에서는 초급 통합 교재에서의 발음 교수-학습 모형을 (1)듣고 따라하기, (2)음운 규칙 설명, (3)연습, (4)마무리 4단계으로 구성하였다.

신지영 외(2015)의 연구에서는 교수 및 학습이 필요한 음운 규칙과 불필요한 음운 규칙을 선정하는 기준을 밝혔다. 교수 및 학습이 필요한 규칙의 조건은 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표면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이거나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규칙이지만 이미 습득한 문법이면서 일정한 환경에서 그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다. 반면 교수 학습이 불필요한 규칙의 조건은 음운 변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규칙이거나 학습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론적 정보가 요구되는 규칙, 또는 음운 규칙의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공식적 음운 규칙으로 기술할 수 없는 현상이다.

‘교수 학습이 필요한 규칙⁵⁾’을 살펴보면, ‘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표면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규칙’으로, ‘평폐쇄음화, 자음군 단순화, 경음화(1): 장애음 뒤 경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화, 유음의 비음화(1), 격음화, /j/ 탈락,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을 들 수 있지만 음운론적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 없이 규칙이 적용되므로 규칙을 교육함으로써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

5) 염선정(2017)에서 인용.

다. 그러나 이 중 ‘평폐쇄음화, 자음군 단순화, /j/ 탈락’은 음절 제약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음운 규칙 단계보다는 음절 단계에서 설명되는 것이 좋으므로 교수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규칙으로 볼 수 있다.

음운론적으로 조건 된 규칙이 아닌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 규칙으로는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내용이며 특정 환경에서 이러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 예를 들면 비음 종결 어간과 어미 사이의 경음화, /ㅎ/ 탈락, 관형형 어미 ‘{-을} 뒤의 경음화’ 등이 있다.

한편 ‘교수 학습이 불필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음운 변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규칙’으로는 ‘한자어 어두 유음의 비음화, 한자어 어두 /ㄴ/ 탈락’이 있다. ‘학습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론적 정보가 요구되는 규칙’으로는 ‘한자어의 경음화’를 들 수 있다. 또 ‘음운 규칙의 발생조건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기술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규칙으로는 ‘/ㄷ/ 첨가’와 ‘/ㄴ/ 첨가’가 있다.

II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비교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첫 단계는 어휘를 형성할 수 있게 한국어 음운체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같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서로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을 잘 이해하기 위해 양국의 음운체계 및 음절 구조의 특성을 대조하여 이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한국어의 발음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3.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모음체계 비교

한국어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을 10개(/ɪ, ɛ, ɐ, ʌ, ɯ, ʊ, ɔ, ʌ, ɐ, 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ɪ/와 /ʊ/를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고 있고, /ɛ//와 /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개의 모음에서 /ʊ/와 /ɪ/가 빠지고 /ɛ/ 와 /ɐ/는 하나의 발음으로 통합되어(편의상 /ɛ/로 표기) 7개의 모음이 된다⁶⁾. 한국어의 모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전후 혀의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ɪ i	ɯ ʊ	ʊ u
중모음	ɛ e	ʌ ɐ	ɔ o
저모음		ʌ a	

이중모음은 ‘j’계 이중모음, ‘w’계 이중 모음, ‘w’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11개(/ɛ, ɐ, ɯ, ʊ, ɔ, ʌ, ɐ, ʌ, ɐ, ʌ, ɐ/)로 보고 있다.

6) 홍종선 외, 쉽게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5)에서 인용.

ㅟ, ㅞ, ㅝ, ㅜ, ㅚ, ㅓ, ㅖ/)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ㅞ/와/ㅟ/, /ㅞ/와 /ㅝ/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쳐서 <표 2>에서 각각 /ㅞ/와 /ㅞ/로 표시하였으며, 표준 발음법에서 단모음으로 규정했던 /ㅖ/가 실제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므로 이중모음 체계⁷⁾에 포함을 시켜 모두 10개가 되었다.

<표 2> 한국어의 이중모음

단모음 \ 발음	ㅣ	ㅞ	ㅡ	ㅓ	ㅕ	ㅗ	ㅛ
j		ㅞ je		ㅓ ja	ㅕ ja	ㅗ ju	ㅛ jo
w	ㅖ wi	ㅞ we		ㅓ wㅓ	ㅕ wa		
u	ㅖ ui						

또한 Đoàn Thiện Thuật(1980)에 따라 베트남어의 모음은 한국어의 모음과 비슷하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어의 단모음 체계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설모음은 평순모음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후설모음은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모음 ‘a, e, i, o, u, y’ 6개가 있으며 여기서 변형된 모음 ‘ă, â, ê, ô, ơ, u’ 총 6개가 추가된다. 따라서 단모음은 모두 12개가 있지만 ‘y’는 ‘ㅣ’와 같은 소리를 발음하므로 모음은 11개음이 있다. 또한, 베트남어에는 반모음으로 ‘y’와 ‘u’ 두 가지가 있다.

베트남어의 이중모음은 ‘iê, ươ, uô’ 3개가 있다. 베트남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모음 ‘i’가 반모음 ‘ê’와 결합하면 ‘iê’가 만들어지며 ‘i’와 ‘y’가 같은 소리를 내므로 이중모음 ‘yê’도 형성된다. 또한, 다른 단모음들과 결합하여 ‘iê, ươ, uô’부터 ‘ia, ya, ua, ua’와 같은 다양한 변이형들까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베트남어의 모음체계는 다음<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홍종선 외, 쉽게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5)에서 인용.

〈표 3〉 베트남어의 모음체계⁸⁾

혀의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슬 모양 혀의 높이	평순		평순		원순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고모음	i, y [i]	iê [ie], ia, yê, ya	u[u]	uơ [uɤ], ura	u [u]	uô [uo], ua
반고모음	ê [e]		ơ [ɤ] â [ɤ̃]		ô [o]	
저모음	ê [ɛ]					
반저모음			a [a] ă [ã]		o [ɔ]	

베트남어 단모음이 한국어 발음과 유사하지만 베트남어 이중모음은 한국어 이중모음과 달리 각각 발음하기 때문에 베트남인이 한국어의 ‘y’계, ‘w’계 이중모음 발음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표 1, 2〉와 〈표 3〉을 비교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음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경우 /ɿ/와 /ɨ/는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ɿ/가 [uɤ]로, /ɨ/가 [uê]로 두 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이중모음으로 간주된다. 한국어의 단모음 중 3개는 전설모음이고 5개는 후설모음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구분이 없다. 또한, 혀의 높낮이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어에는 3개의 고모음, 3개의 중모음, 2개의 저모음이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의 구분이 없다. 입술 모양으로 보면, 한국어에는 2개의 원순모음과 6개의 평순모음이 있지만, 베트남어에는 입술 모양에 따른 모음의 구분이 없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음의 공통점은 둘 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모음을 구분할 수 있고 발음에 따라 음운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 비교

8) 초등학교 1학년 베트남어 교과서, 베트남 교육부 출판사.

Đoàn Thiện Thuật. (1980). Ngữ âm tiếng Việt. Hà Nội, Đại học và Trung học Chuyên nghiệp.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하고 비교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한국어의 자음 체계

한국어 표준어에서 자음 음소는 총 19가지이고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 자음 체계⁹⁾

조음위치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조음방법						
폐쇄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격음	ㅃ	ㄸ		ㅋ	
	경음	ㅍ	ㅌ		ㆁ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ㅍ		
비음		ㅁ	ㄴ		ㅇ	
설측음 (유음)			ㄹ			

〈표 4〉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19개의 자음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발생 유형에 의하여 분류한 후 표로 만든 것이다. 〈표 4〉에서 보였듯이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별로는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다섯 가지 조음 위치에서 만들어지며, 조음 방법 별로는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설측음의 역시 다섯 가지 조음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¹⁰⁾

위에 있는 표를 보면 한국어 자음 체계는 평음, 격음과 경음으로 나뉜다. 평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은 10개이고 경음(ㅃ, ㄸ, ㅍ, ㅆ, ㅊ)은 4개이고 격음(ㅅ, ㅆ, ㅌ, ㅊ)은 5개이다.

조음 위치¹¹⁾는 각 자음을 발음할 때 입 안에서 막힘이나 마찰 등의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 4개 위

9), 10) 신지영 - 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2003)

11) 정소영(2018)에서 인용.

치로 나누기도한다. 단, /ㅎ/은 소리가 나는 일정한 자리를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 밖으로 즉, 체계 밖에 있는 자음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순음은 두 입술을 맞대어 내는 소리로, 양순음이라고 한다. 자음/ㅂ,ㅍ,ㅃ,ㅁ/이 이에 해당한다. 치경음은 윗잇몸보다 조금 안쪽에 돌기가 있는 부분과 혀끝 사이에서 장애가 일어나며, 자음 /ㄷ,ㅌ,ㅌ,ㄴ,ㄹ/이 치조음에 해당한다. 혀끝을 윗니 뒷부분에 대어 내는 소리로, 자음 /ㅅ,ㅆ/이 이에 해당한다. 경구개음은 치조보다 조금 더 안쪽인 딱딱한 입천장과 혀의 앞부분 사이에서 장애가 일어나며 /ㅈ,ㅊ,ㅉ/이 이에 속한다. 연구개음은 경구개보다 조금 안쪽의 부드러운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 사이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소리로, /ㄱ,ㅋ,ㆁ,ㅇ/이 이에 해당한다.

조음 방법¹²⁾에 의한 분류로는 먼저 장애음인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과, 향음, 인비음, 유음으로 구분된다. 장애음은 장애가 있으면서 성대가 떨리지 않는 소리라는 뜻이고, 향음은 장애가 있으면서 성대가 떨린다는 의미이다. 자음을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로는 ‘막힘’과 ‘좁은 틈’을 들 수 있다. 파열음은 막힘의 장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음이 파열음이다. 파열음은 입안의 어느 부분을 짧은 순간 막았다가 터트리며 소리 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파열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 ① 막는 단계, ② 지속 단계, ③ 터트리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양순음 /ㅂ,ㅍ,ㅃ/은 두 입술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소리 내고, 치조음 /ㄷ,ㅌ,ㅌ/은 혀의 끝부분을 치조에 대어, 연구개음 /ㄱ,ㅋ,ㆁ/은 후설을 연구개에 대어 기류를 막았다가 터뜨려 내는 소리이다. 마찰음은 좁은 틈 장애로 만들어진 자음이다. 좁은 틈 장애는 입안의 어느 틈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그 틈을 이루고 있는 부분과 공기가 서로 마찰이 되어 소리가 날 정도의 좁은 틈을 말하는데, 이러한 마찰에 의한 소리를 마찰음이라 한다. 치조음 /ㅅ,ㅆ/은 혀끝과 치조 사이에서, /ㅎ/은 좁아진성문에서 기류가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이다. 파찰음은 막힘과 좁은 틈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소리이다. 즉, 파열이 일어난 후 바로 형성되는 좁은 틈 사이에 마찰이 생겨 만들어진 자음이다.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이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찰음이라 부른다. 경구개음 /ㅈ,ㅊ,ㅉ/이 이에 해당한다. 비음은 목젇이 비강 쪽 통로를 막지 않아 기류가 비강을 통해 나오면서 나는 소리가 비음이다. 비음을 낼 때 구강의 발음기관의 상

12) 정소영(2018)에서 인용.

태는 파열음을 낼 때와 같다. 예를 들어 양순음 /ㅁ/을 발음할 때의 입술의 상태는 양순음 /ㅂ,ㅍ,ㅃ/을 발음할 때와 같고, 치조음 /ㄴ/과 /ㄷ,ㅌ,ㄸ/, 연구개음 /ㅇ/과 /ㄱ,ㅋ,ㆁ/도 혀의 상태가 각각 같다. 목젓이 비강 쪽 통로를 막느냐 막지 않느냐만 다르다. 비음도 파열음처럼 발음의 세 단계를 가진다. 다만 지속 단계에서 비강쪽 통로가 열려 있으므로 공기 압력이 높지 않아 터트림 단계에서의 정도가 세지 않다. 유음은 (설측음) 자음 중 기류가 가장 적게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 자음 중 유음은 /ㄹ/ 하나뿐인데, 이는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설측음[l]과 탄설음[r]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측음은 혀의 중앙을 치조구개에 대어 혀의 옆으로 기류가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로, /ㄹ/이 받침으로 올 때 쓰이고, 탄설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살짝 대었다 떼면서 소리내며 /ㄹ/이 초성 자리에 올 때 쓰인다.

3.2.2.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

베트남어에도 자음 체계는 삼분체계¹³⁾이다. 베트남어에서는 자음은 몇 개 쓰는지에 따라 자음 체계를 나눈다.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는 단자음, 이중자음, 삼중자음이다.

13) HUA NGUYEN MINH THAO(2018)에서 인용.

〈표 5〉 베트남어 자음 체계¹⁴⁾

베트남어 자음 체계	베트남어 표기	발음 방법	국제 음성 기호 (IPA)
단자음 (17)	b	[bờ]	/b/
	c	[cờ]	/k/
	d	[dờ]	/d/
	đ	[đờ]	/dʲ/
	g	[gờ]	/g/
	h	[hờ]	/h/
	k	[ca]	/k/
	l	[lờ]	/l/
	m	[mờ]	/m/
	n	[nờ]	/n/
	p	[pờ]	/p/
	q	[quờ]	/kw/
	r	[rờ]	/r/
	s	[sờ]	/ʰs~ʒs/
	t	[tờ]	/t/
	v	[vờ]	/v/
	x	[xờ]	/s ^(h) ~z/
이중자음 (10)	ch	[chờ]	/tʰ ^(h) ~dʒ/
	gh	[gờ]	/g/
	gi	[giờ]	/z, j/
	kh	[khờ]	/kʰ/
	ng	[ngờ]	/ŋ/
	nh	[nhờ]	/ɲ/
	ph	[phờ]	/pʰ, f/
	qu	[quờ]	/kw, w/
	th	[thờ]	/tʰ/
삼중자음 (1)	tr	[trờ]	/tʰ/
	ngh	[ngờ]	/ŋ/

〈표 5〉를 보면 베트남어 자음 체계는 단자음은 ‘b, c, d, đ, g, h, k, l, m, n, p, q, r, s, t, v, x’ 등 17개이고 이중자음은 ‘ch, gh, gi, kh, ng, nh, ph, qu, th, tr’ 등 10개이고 삼중 자음은 ‘ngh’ 등 한 개다. 그러나 평음, 격음과 경음으로 나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28개의 자음 중에 23개가 한국어 자음과 발음이 비슷하다.

3.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비교

서로 발음이 비슷한 자음들은 아래 〈표 6〉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6〉 한국어의 자음과 베트남어의 자음¹⁵⁾

14) 초등학교 1학년 베트남어 교과서(2015). 베트남 교육부 출판사.

Đoàn Thiện Thuật. (1980). Ngữ âm tiếng Việt. Hà Nội, Đại học và Trung học Chuyên nghiệp

15) HUA NGUYEN MINH THAO(2018)에서 인용.

한국어의 자음		베트남어의 자음	
	글자	IPA	베트남어 표기
평음	ㄱ	/k ^(h) ~g/	g, gh
	ㄴ	/n/	n
	ㄷ	/t ^(h) ~d/	d, d
	ㄹ	/r~l/	r, l
	ㅁ	/m/	m
	ㅂ	/p ^(h) ~b/	b
	ㅅ	/s ^(h) ~z/, /c ^(h) ~z/	x
	ㅇ	/ŋ/	ng, ngh
	ㅈ	/tɕ ^(h) ~dz/	ch
격음	ㅋ	/tɕ ^h ~dz ^h /	(해당 없음)
	ㆁ	/k ^h ~g ^h /	kh
	ㆅ	/t ^h ~d ^h /	th
	ㆇ	/p ^h ~b ^h /	ph
경음	ㆁ	/ʔk/	c, k
	ㆅ	/ʔt/	t
	ㆇ	/ʔp/	p
	ㆉ	/ʔs~ʔc/	s
	ㆊ	/ʔtɕ/	tr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q
	(해당 없음)	(해당 없음)	v
	(해당 없음)	(해당 없음)	gi
	(해당 없음)	(해당 없음)	nh
	(해당 없음)	(해당 없음)	qu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에는 ‘ㄷ’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자음 중 23개가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다섯 개의 자음인 ‘q/kw/, v/v/, gi/z,j/, nh/n/, qu/kw,w/’는 국제음성기호로 표현되는 한국어 자음과 다르게 볼 수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가 국제음성기호로 표기되는 방식이 유사하지만, 발음은 습관과 억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ㄱ’ 자음은 국제음성기호로 /k^(h) ~g/로 표기되고, 베트남어의 ‘g’와 ‘gh’ 자음은 /g/로 표기된다. 이로 인해 두 언어에서 ‘ㄱ’의 발음은 /k^(h) / 또는 /g/로 발음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g’와 ‘gh’ 자음이 단지 /g/로만 발음할 수 있다.

또한, ‘ㄷ/t^(h) ~d/’와 ‘d, d/d/’, ‘ㅂ/p^(h) ~b/’와 ‘b/b/’, ‘ㅅ/s^(h) ~z/, /c^(h) ~z/’와 ‘x/s^(h) ~z/’ 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즉, 한국어와 베트남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국제음성기호에 따라 한국어의 경음 ‘ㆁ,ㆅ,ㆇ,ㆉ,ㆊ’의 경우 소리가 강하게 발음되지만 대체로 베트남어의 ‘c/k, t,

p, s, tr'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 표를 통해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은 발음법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제음성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두 언어의 평음들은 차이가 거의 없으니 베트남 학습자들이 평음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위에서 언급했던 베트남어에는 평음, 경음과 격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음들의 발음을 듣거나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쉽게 겪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경음과 격음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음 발음을 가르칠 때 격음과 경음에도 집중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발음 연습도 진행해야 한다.¹⁶⁾

3.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비교

외국어 학습은 발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수적이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절이다. 또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소 체계, 음절 구조에서 차이점이 존재해서 음절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하여 두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3.1.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의 음절 내부 구조가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초성과 중성이 하나의 단위를 먼저 이루고 여기에 종성이 결합하는 음절 구조인 좌분지 구조를 주장하는 견해도 많았지만, 초기에는 우분지 구조 즉, 중성과 종성이 하나의 단위를 먼저 이루고 여기에 초성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음절 구조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초성, 중성, 종성 등이 세 음절 성분의 관계는 가깝지 않으며 서로에게 독립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초성, 중성, 종성이 대등하게 음절을 형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초성과 종성 없이 중성만 있어도 충분히 음절을 이룰 수 있으며 이 3가지 음절 성분이 서로 의지하지

16) HUA NGUYEN MINH THAO(2018)에서 인용.

는 않고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음절 구조는 평면 구조로 설정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평면 구조이다. 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다. 한 음절에서 중성은 필수적인 성분이고, 중심이 되고 핵음이라고도 한다. 중성 앞에 오는 자음은 초성이고, 뒤에 오는 자음을 종성이라고 한다. 초성과 종성 없이 중성만 있어도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중성이 없으면 음절을 이룰 수 없다. 한국어 음절의 초성이나 종성에는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 <표 7>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어의 음절구조

한국어의 음절		
초성	중성	종성
C	V	C

한국어 음절구조의 유형 살펴보면, 음절구조는 음절성분의 층위에서 가지이고 분절음의 층위에서는 가지이다.

<표 8> 한국어 음절구조의 유형¹⁷⁾

음절성분의 층위	분절음의 층위	예
중성	V	어
초성 + 중성	CV	거
중성 + 종성	VC	언
초성 + 중성 + 종성	CVC	건

한국어의 음절성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성으로 한국어에서 중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음밖에 없다. 자음은 중성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성은 음절의 중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성이 없으면 음절을 형성할 수 없다.

17) 배주채 자음(2008), 한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초성과 종성은 없어도 음절이 형성될 수 있다.

3.3.2. 베트남의 음절 구조

베트남어 음절은 초분절적 요소인 성조가 분절적 요소인 첫음, 활음, 주음, 끝음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베트남어 음절은 항상 성조를 가지고 있다. 주음(âm chính)은 끝음과의 결합면에서 매우 밀착되어 있다. 단모음(짧은 모음)이 오게 되면, 끝음이 길고 장모음이 오면 끝음은 짧아진다. 이것들은 음절의 주요한 음색(âm sắc)이 된다. 활음(âm đ ẽm)과 주음의 결합은 주음과 끝음의 결합이 그만큼 밀접하게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요소 중 활음, 주음 그리고 끝음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운(v ậ n)이라고 한다. 첫음 역시 성조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음절보다 작은 각각의 음절로 나누어지며 항상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베트남어는 단계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한다. 베트남어의 주음 자리엔 한국어처럼 모음만 올 수 있으며, 끝음에는 자음뿐만 아니라 반모음도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첫음, 활음, 주음, 끝음, 성조> 이상 총 다섯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LOAN = L(첫음) + O(활음) + A(주음) + N(끝음)과 같은 음절을 베트남어에서는 가장 완벽한 음절이라고 말한다. 베트남의 음절 구조 <표 9>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베트남어의 음절구조

베트남어의 음절			
첫음	성조		
	음		
	활음	주음	끝음
(C)	(S)	V	(C)

(C 는 첫소리/끝소리(자음), V 는 주음(모음), S 는 활음, ()는 수의적)

베트남어 음절의 유형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구성요소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부 나열되거나 일부 누락된 형태로 이뤄져 있다. 5번째 요소

인 성조의 경우 어차피 모든 음절에 들어가는 기본요소이므로 음절의 유형을 따질 때는 생략되는 편이다. 베트남어의 음절구조의 유형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 베트남어 음절구조의 유형

음절 성분의 층위	분절음의 층위	예	성조
성조 + (첫음 + (주음))	CV	ha	—
	CVV	kia	‘
성조+(첫음+(활음+주음))	CSV	hoa	—
	CSVV	khuya	—
성조+(첫음+(주음+끝음))	CVS	hào	‘
	CVVS	hiếu	/
	CVC	nỗn	~
	CVVC	muộn	.
성조+(첫음+(활음+주음+끝음))	CSVs	tuổi	?
	CSVc	toan	—
	CSVVC	tuyệt	/

〈표 10〉에서 베트남어는 어떤 음절이라도 반드시(성조+(첫음+(주음)))과 같은 음절 성분을 가져야 한다. 비록 첫음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는 성문폐쇄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베트남어는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성절음이 될 수 있으며 그 모든 음절은 성절음으로서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대조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음절의 필수적인 성분은 모음인데 한국어의 중성과 베트남어의 주음에 해당한다.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같이 자음이 음절 초나 음절 말에 하나만 올 수 있다. 음절 구조에 있어서 한국어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 세 부분으로 각각 대등한 관계를 갖는 평면구조인 반면 베트남어 음절 구조는 크게 첫음과 운모로 나뉘고 운모는 다시 활음, 주음과 끝음으로 분류되어

음절을 구성하는 계층적인 관계를 이루는 우분지 구조라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의 초성은 베트남어의 자음에 대응되고 중성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해당하며 종성은 베트남어의 자음 끝음과 대응된다. 한국어의 중성과 종성은 각각 독립적이고 결합 제한 없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어의 운모는 한 덩어리로 될 수 있고, 활음, 주음, 끝음의 연쇄가 가능한 음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음소들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 음절과 베트남어 음절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¹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음절 구조와 베트남어 음절 구조는 초분절적 요소와 분절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분절적 요소의 경우 한국어 음절 구조는 평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어 음절 구조는 계층적인 구조를 보일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음절 초성 위치는 베트남어의 첫음에 해당하며, 초성이나 첫음 위치에서 자음의 역할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초성 위치에는 자음이 18개만 올 수 있는 반면에 베트남어 첫음 위치에는 자음이 22개만 올 수 있다.

셋째,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은 서로 대응하는데, 한국어 음절 초성, 중성, 종성이 베트남어 음절은 첫음, 주음, 끝음의 순서로 대응한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는 베트남어의 경우 중간음에 활음이 있지만, 한국어 음중간음(중성)에는 활음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어 음절의 중성 위치에는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올 수 있으며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베트남어 이중모음은 한국어와 다르게 반모음과 단순 모음의 결합이 아니라 단순 모음과 이중모음의 결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과 같이 7개의 자음 음소가 올 수 있다. 반면에 베트남어 음절 끝음 위치에는 /k, m, n, p, ŋ, t/과 같이 6개의 자음 음소만이 올 수 있다. 또한, 베트남어 끝음 위치는 유음이 올 수 없다는 점이 한국어와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어 종성에는 반모음이 올 수 없

18) 찌우티튀(2011)에서 참조.

지만 베트남어 음절 끝 위치에는 반모음이 올 수 있다는 점도 두 언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여섯째, 음소체계의 경우 베트남어는 성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4.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규칙

3.4.1. 한국어 음운규칙

발음규칙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분류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지영·차재은(2003)¹⁹⁾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크게 대치, 탈락, 축약, 첨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대치는 특정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것이며, 탈락은 특정 음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축약은 두 소리가 하나로 줄면서 음절 경계가 바뀌는 것이고, 첨가는 원래 없던 음소가 생겨나는 것이다. <표 11>는 신지영·차재은(2003)에서 분류한 한국어 음운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한국어의 음운규칙

대분류	세부항목
대치	평폐쇄음화
	유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탈락	자음군 단순화
	동일 조음 장애음 탈락
	'ㅎ'탈락
	/j/ 탈락
축약	격음화

19) 신지영·차재은(2003)에서 인용.

참가	활음화 (음절 축약)
	‘ㄴ’첨가
	‘ㄷ’첨가

위에 있는 표에서 음운규칙을 크게 13개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ㄹ’ 탈락, ‘ㄷ’ 첨가 규칙을 제외하고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그 외에 연음화 규칙도 언급하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1.1. 대치 현상

A. 평폐쇄음화

평폐쇄음이 아닌 소리가 평폐쇄음으로 바뀌는 것을 평폐쇄음화²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격음, 경음, 마찰음, 파찰음, 성문음이 평폐쇄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포함된다. 음절구조제약에 따르면 자음 19개 중 종성에 올 수 있는 것은 7개뿐이다. 7개 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놓이게 될 때는 7개 중의 하나로 바뀌게 된다(배주채, 2003:21). 모든 장애음, 즉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은 음절말에서 평음인 폐쇄음 ‘ㅂ, ㄷ, ㄱ’ 중의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 평폐쇄음화이다.

가. /ㅍ/ → [ㅂ]. 앞[압], 앞도[압또]

나. /ㅌ, ㅍ, ㅆ, ㅈ, ㅊ/ → [ㄷ]. 있다[일따], 낮과[날파], 받[받]

다. /ㅃ, ㅋ/ → [ㄱ]. 부엌[부억], 밖[박]

라. /ㅎ/ → [ㄷ]. 낳는다→날는다[난는다]

B. 연음화

연음화는 한국어 발음 규칙 중 하나로,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질 때,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뒤 음절의 비어 있는 초성 자리로 옮겨 가서 소리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꽃이 예뻐요’에서 ‘꽃이’ 부분이 [꼬치]로, /ㄷ/이

20) 신지영·차재은(2003, p177)에서 인용.

표기상으로는 종성 자리에 있지만 종성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뒤 음절의 비어 있는 초성 자리로 옮겨져 소리 나는 것이다.

가. 음악[으막], 한국어[한구거]

나. 꽃이[꼬치], 이름은[이르믄]

연음화는 한국어의 발음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언어적인 흐름과 발음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C. 유음화

유음화에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있다. 순행적 유음화는 'ㄹ'과 'ㄴ'이 결합할 때 'ㄹ'로 발음이 바뀌는 현상을 말하고, 역행적 유음화는 'ㄴ'과 'ㄹ'이 결합할 때 'ㄹ'로 발음이 바뀌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행적 유음화는 주로 한자어와 외래어에서 일어난다. 음절 연결 제약으로 인해 'ㄴ+ㄹ' 또는 'ㄹ+ㄴ'가 부적절한 경우에 일어나는 동화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유음화를 설명할 때 순행적 동화와 역행적 동화를 구분하지만, 이 구분은 강조되지 않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ㄹ/이 /ㄴ/음을 만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가. 설날[설랄], 물냉면[물랭면]

나. 연락[열락], 편리[펼리]

D. 비음화

비음화는 표기상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 [ㅁ, ㄴ, ㅇ]으로 발음된다는 뜻이다. 비음화는 장애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로 구분된다.

장애음의 비음화는 [ㅂ, ㄸ, ㄱ]로 발음되는 장애음 받침 뒤에 초성 /ㅁ, ㄴ/이 오면, 장애음은 자기 그룹의 비음인 [ㅁ, ㄴ,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예를 들어 밥만[밤만], 잡는[잠는], 작년[장년], 옷마다[온마다]들을 수 있다.

유음의 비음화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ㄹ/

앞의 받침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두 번째 조건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가. /ㄱ, ㅇ/+/ㄹ/ -> /ㄹ->[ㄴ]/. 심리[심니],정리[정니]

나. /ㄴ/+/ㄹ/ -> /ㄹ->[ㄴ]/. 생산량[생산냥], 판단력[판단넉]

E.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ㄷ, ㅌ/가 경구개음인 [ㅈ, ㅊ]로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개음화는 음운적 조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받침으로 쓰인 /ㄷ, ㅌ/ 뒤에 ㅣ계 모음 /ㅣ, ㅟ, ㅠ, ㅡ, ㅢ, ㅤ, ㅥ, ㅦ/가 오면 /ㄷ/은 [ㅈ]으로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단위별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같이[가치], 굳이[구지] 등이 있다.

받침 /ㄷ, ㅌ/ 뒤에 피동/사동접미사 ‘-히-’가 오면, /ㄷ, ㅌ/이 /ㅎ/을 만나 [ㅈ]로 발음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잊히다[이치다], 꽃히다[꼬치다] 등이 있다.

F. 경음화

경음화란 평음으로 표기 된 /ㅂ, ㄷ, ㅌ, ㅍ, ㅊ/가 어떤 조건하에서 각각의 경음 짝[ㅃ, ㄸ, ㅆ, ㅊ, ㅍ]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경음화는 규칙이 적용되는 음성적 환경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평폐쇄음 뒤 경음화는 /ㅎ/을 제외한 평음, 격음, 경음 받침과 평음 초성이 만날 때, 앞 음절의 받침은자기 그룹의 대표음으로 발음되고, 뒤 음절의 초성은 경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예를 들어 국밥[국뽵], 민고[민꼬], 꽃다발[꼴따발] 등이 있다.

비음 · 유음 받침 혹은 모음 뒤 초성자리에 평음이 오면, 앞 음절에는 변화가 없고 뒤 음절의 초성인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이 규칙은 ‘물고기[물꼬기]와 불고기[불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적,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받침 /ㅎ/과 초성자리의 /ㄱ/이 만나면, 이 둘이 축약되어 [쓰]로 소리 난다. 원래 받침 /ㅎ/과 평음 초성이 만나면, 격음화가 일어나지만, /ㄱ/은 격음 짝이 없으므로, 경음 짝인 [쓰]로 발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습니다[조쓰니다], 많 습니다[만쓰니다], 싫습니다[실쓰니다]등이 있다.

3.4.1.2. 탈락 현상

탈락 현상에는 자음군 단순화,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²¹⁾, ‘ㅎ’탈락, /j/ 탈락²²⁾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실제로 교수하는 자음군 단순 화와 ‘ㅎ’탈락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인 경우 둘 중 하나만 발음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따다[막따]’, ‘따지[막찌]’와 같이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탈락 현상 중 외국인 학습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우는 탈락 현상은 ‘ㅎ’탈락일 것이다. 동사 활용에서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어간 말 자음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좋아요[조아요], 많아서 [마나서]등이 있다.

3.4.1.3. 축약 현상²³⁾

축약 현상은 경음화와 활음화(음절 축약)의 2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경음화만 살펴보려고 한다.

격음화는 /ㅎ/과 다른 평음들이 축약되어 하나의 격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말

21)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은 ‘집필’을 [지필]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장애음이 연쇄 되는 경우 선행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사실상 동일한 장애음이 탈락한 경우와 탈락하지 않은 경우의 발음이 청각적으로 구분이 힘든 데다가,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탈락을 강조하지 않아도 어려운 중성이 나오면 탈락하고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교수하지 않는 편이다.

22) /j/ 탈락은 치경 경구개음 /ㅈ, ㅊ/ 뒤에서는 활음 /j/가 나타날 수 없어서 활용 과정에서 /j/가 나타나는 경우 /j/를 필수적으로 탈락하여 [저, 처]로 발음하는 음운규칙이다. 예를 들어, ‘다쳐서’를 [다쳐서]로 발음하는 현상이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철자 그대로 발음하는 데다가 이 규칙을 따로 배우지 않는 경우에 [저, 처]로 부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는 이중모음을 발음하지 못해서 단모음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여서 교수하지않는 편이다.

23) 정소영(2018)에서 인용.

한다. 격음화는 평음 뒤에 /ㅎ/이 있는 경우와, 평음 앞에 /ㅎ/이 있는 경우, 피동·사동접미사 ‘-히-’와 연관된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ㅎ/을 제외한 평음, 격음, 경음 받침 뒤에, 초성 /ㅎ/이 오면, 이 두 자음이 축약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서 각 대표음의 격음인 [표, ㅌ, ㅋ]로 발음된다. 종성규칙 후 격음화가 적용되는 원리이다.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형 동사‘하다’앞에 장애음 받침이 올 때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

예: 축하[추카], 망형[마텅]

/ㅎ/ 받침 뒤에, 초성 /ㄱ, ㄷ, ㅌ/이 오면, 두 자음이 축약되어 각자의 격음 짝[ㅋ, ㅌ, ㄷ]로 발음된다.

예: 좋고[조코], 낳다[나타]

첫 번째 격음화에서 표기상 /ㄷ+ㅎ/, /ㅌ+ㅎ/은 모두 [ㅌ]로 축약되는데, /ㅎ/이 피동·사동접미사인 ‘-히-’의 일부라면 최후의 발음은 격음화 이후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ㄷ]가 된다.

예. 맞히다[마치다], 닫히다[다치다]

3.4.1.4. 첨가 현상

첨가 현상에는 ‘ㄴ’첨가와 ‘ㄷ’첨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ㄴ’첨가만 다룬다.

[ㄴ] 첨가는 복합어의 뒷말에만 발생하는데, 이는 복합어의 앞말이 폐음절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j-계 상향 이중모음으로 시작될 때 나타난다. 또한, 두 단어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발생한다.

1) 단순 /ㄴ/첨가

A의 받침이 비음이면, 단순히 B의 초성 자리에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단순/ㄴ/첨가의 예로는 신촌역[신촌ㄴ], 이번 역[이번ㄴ], 만난 여자[만난ㄴ녀자] 등

이 있다.

2) /ㄴ/첨가 후 비음화

A의 받침이 평음, 격음, 경음이면, B 초성자리에 첨가된 [ㄴ]에 의해 A의 받침이 각 그룹의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꽃잎[꼇닙], 한국 요리[한궁뇨리], 중국 여행[중궁녀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ㄴ/첨가 후 유음화

A의 받침이 /ㄹ/이면, B의 초성자리에 첨가된 [ㄴ]은 유음화가 적용되어 [ㄴ]로소리 난다. 서울역[서울력], 볼 일[볼릴]이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한국어의 음운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1개 발음규칙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3.4.2. 베트남어 음운현상

한국어의 음운현상이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것과 달리, 베트남어는 음운현상이 다양하지 않다.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이는 철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베트남어는 단어 하나에 의미와 성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보존하면서 발음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음운현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조정선(2020, p78-85).

또한, 베트남어는 한글 맞춤법처럼 규범이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교육부에서 임시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통일되지 않은 맞춤법은 대중의 발음 습관에 따라 사용하며, 두 가지 표기 형식이 존재하면 둘 다 인정된다. 베트남어는 철자와 소리가 거의 일치하며, 음운 변동은 주로 성조 변동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숫자 15는 'mười năm'이지만 실제 발음인 'mười lăm'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부이타응옥빛, 2011)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소리만 변화할 뿐 철자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베트남어의 경우 음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철자까지 달라진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결과

적으로 베트남어의 음운규칙²⁴⁾은 사전에서 허용하는 다른 철자로 기재하고 그 철자대로 발음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규칙과 같이 철자와 다른 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규칙은 그 맥락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베트남어의 음운현상을 대치 현상, 탈락 현상, 도치현상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찌우티투튀, 2011; 윤셋별, 2018). 찌우티투튀(2011)의 연연구에서는 음운규칙이 발생하는 단어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베트남어에도 공시적인 음운규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근거로 제시된 예시들이 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공시적 음운규칙을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음운규칙을 바라보는 맥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맥락의 차이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옥루이엔(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초성, 중성, 종성의 음소배열 제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행 음절 종성과 후행 음절 초성의 음운 경계에서 발생하는 음운규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만 언급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팜티휘엔짱(2017)은 베트남어의 음운규칙에 대해 고립어적 특성으로 인해 음절마다 띄어 읽는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어에서는 음절 경계에서 음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최정선(2020)은 한국어 음운규칙과 베트남어 음운현상을 비교하였고 베트남어는 음절대로 발음하는 고립어의 특성이 있다 보니, 음운규칙이 발생하는 특별한 제약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철자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철자대로 발음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베트남어 음운 현상은 크게 4가지 나눌 수 있다.

A. 이화현상

24) 최정선(2020)에서 인용.

이화현상²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소가 가까이 있을 때, 공통성이 적은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 완전히 탈락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đỏ đỏ’(울긋불긋하다)를 발음할 때 성조가 바뀌어서 ‘đo đò’로 발음하게 되거나, ‘ách ách’(분노)의 앞 음절과 뒤 음절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 음절 ‘ách’가 ‘anh’으로 바뀌어서 ‘anh ách’가 되는 것이 그 예이다.

B. 탈락현상²⁶⁾

탈락 현상은 보다 더 쉽게 발음하도록 음소가 줄어드는 현상으로서, 보통 구어에서 자주 발견된다. ‘mười(10)’ 탈락 현상이 대표적이다. 숫자를 셀 때 본래 ‘mười’를 포함해서 말해야 하지만, 20 이상부터는 ‘mười’를 탈락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0은 3을 의미하는 ‘ba’와 10을 의미하는 ‘mười’가 결합하여 ‘ba mười’라고 하고, 여기에 31이면 1을 의미하는 ‘mốt’을 결합하여 ‘ba mười mốt’이라고 쓰면 31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때 ‘mười’를 탈락시켜서 ‘ba mố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숫자를 셀 때 ‘mười’를 포함해야 하지만, 20 이상에서는 ‘mười’를 생략해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1은 ‘hai mười mốt’이지만, ‘mười’를 생략해 ‘hai mốt’으로 말할 수 있다.

C. 동음현상

하노이 및 많은 북부 지방 사람들은 일상 의사소통에서 ch/tʃ/와 tr/tʃ/; s/s/와 x/z/; d/d/, gi/z,j/와 r/r/를 구별하지 않고, "che chồ (보호)"와 "cây tre (대나무)"; "xa xôi (멀리)"와 "nước sôi (끓는 물)"; "đa thịt (피부)", "gia đình (가족)"과 "đi ra (나가)"라는 단어에서 고려하는 첫음을 동일하게 의미한다. 이 모든 초성들은 혀끝이 납작하게 발음된다. 그러나 하노이 및 북부 여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3음위 /tʃ/, /s/, /d/을 사용한다.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음향의 지역 변종은 매우 다양하다. 별도

25) 최정순(2020)에서 인용.

26) 최정순(2020)에서 참조.

의 연구가 필요하다."(Đoàn Thiện Thuật, 1977, p.172)

D. 성조현상

베트남어와 다른 언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다. 베트남어 성조는 6개 있고 무성조 (thanh ngang), 내림성조 (thanh huyền), 올림성조 (thanh sắc), 꺾임성조 (thanh hỏi), 물결성조 (thanh ngã), 점성조 (thanh nặng)등과 같은 성조이다. 주로 성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성조는 베트남어 발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같은 음절이지만 다른 성조가 추가되면 발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a (귀신)”라는 단어는 베트남어로 "ma"라고 쓸 때 무성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ma/로 발음한다. 무성조는 기본적으로 성조 없이 발음된 것을 보인다. 올림성조는 날카로운 상승 성조로, “má”는 ‘엄마’를 의미하고 내림성조는 낮고 내려가는 성조로 “mà”는 ‘그러나’를 의미한다. 꺾임성조는 상승 후 하강하는 성조로, “mã”는 ‘무덤’을 의미하고 물결성조는 강한 상승 후 하강하는 성조로, “mã”는 ‘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점성조는 낮고 갑작스러운 하강 성조로, “mạ”는 ‘모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규칙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음운 대치 현상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가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어는 음절 내에서뿐만 아니라 음절 사이에서도 음운 변화가 발생하는 반면, 베트남어는 한 단어 내에서 음운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어의 경우 음운 현상은 소리 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철자와는 다르게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에 베트남어의 경우 음운 현상이 드물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철자에 반영되므로 결국 철자대로 발음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어의 음운 규칙을 하나의 규칙으로 일괄적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규칙은 발화자의 입장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는 철자에 반영되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모국어 음운 규칙에 의한 음성적 간섭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음운 규칙 미적용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운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음운 규칙을 적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교재, 연구 분석 및 발음 오류 실험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어떻게 발음 규칙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재의 발음 규칙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어떤 문제점을 고려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발음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어떤 발음 교육을 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에는 어떠한 유형의 오류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발음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1. 한국어 교재 분석

4.1.1. 교재 대상 선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많은 연구자들이 발음 교육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현재 많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기본서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다. 그중에 2종은 전세계 한국어 학습자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에서 출판한 한국어 통합교재로 한다. 1종은 베트남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출판한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종합교재로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발음은 통합교재의 한 영역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었기에 발음 전용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발음 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발음 연습을 위한 자율학습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을 추가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분석 대상인 4종 교재의 명칭은 편의상 다음과 같다.

- 1) 서울대학교, 『서울대 한국어』, 2012~2015
- 2)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2008~2010
- 3)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2009
- 4)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2008

본 연구에서는 발음 교육 내용이 담긴 한국어 교재를 찾아봤지만, 발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많지 않았다. 우선, 어학당의 한국어 수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 『서강대 한국어』 등이 있는데 위 교재들은 발음을 참고 정도로 제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읽기 수준용이며 정식 교육이나 별도의 수업에는 포함되지 않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교재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이다. 이 교재에서 발음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포함되어 있을 뿐 한국어 수업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발음에만 초점을 맞춘 교재를 찾다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를 고려했다. 이 책은 발음 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발음 연습을 위한 자율학습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음성학, 음운론을 전공한 현직 한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탄탄한 이론 지식과 함께 실제적이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담았다. 하지만 이 책은 교사의 지도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책으로 여겨진다.

4.1.2. 교재 분석 기준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었고, 특히 교과서에서 발음을 가르치는 단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재 내 발음 교육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하였다.

백소영(2010)은 단원의 본문에서 사용하는 문장이나 대사를 활용하여 교재의 성격에 따라 단원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발음을 제시하고, 발음을 구현하기 위한

음운적 조건이나 발음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음 규칙의 연습 단계에서는 다른 기능을 위한 연습을 통합하여 발음이 별도의 언어 요소가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과 불가분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윤정기(2011)은 5종의 통합교재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교육 방법 측면에서는 5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음운 규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제시 단어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연습문제나 다양한 활동이 부족하다. 넷째,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고급에 치우쳤다. 다섯째, 음운 규칙 적용 단위가 단어나 어절에 국한된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발음 교육의 지속성이 결여되었고, 음운 규칙의 항목이나 단어 용례가 학습자의 숙련도에 맞지 않으며 각 단원의 학습량이 균등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허유라·박덕유(2012)는 발음규칙 교육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발음교육을 위한 예시문장과 내용은 단원의 주제와 학습 내용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한편, 발음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는 난이도와 빈도를 고려하되 학습자가 제시한 내용을 가르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발음 규칙의 명칭과 설명은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설명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에 발음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몇 개의 선행 단원을 검토하는 종합 연습 단원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현정(2013)은 발음 교육 내용 측면의 개선 사항으로는 학습 단계별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발음 강의 계획서와 용어를 정리하여 통일해야 한다. 발음 규칙이 제시되면 관련 발음 원리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 표준 발음법에 맞게 작성하고 발음 기호는 국제 음성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다. 발음 교육 방법 측면의 개선 사항으로는 교육 방법의 세 단계인 노출-실천-설명을 적절히 조합하여 교육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인의 실제 발음을 교과서에 표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염선정(2017)은 발음규칙은 규칙으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예시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음규칙에 대한 교육안은 형식

적인 구성과 내용적인 구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중 형식적인 구성안은 (1) 전 단계 (초급에서 고급으로)의 구성과 발표(2) 독립적인 발음 영역의 구성 (3) 나선형 학습이었다. 음운 규칙의 관계를 고려한 원리를 활용한 단위 구성 (4) 발표-설명-실습의 3단계 구성, 내용적인 구성안은 (1) 음운규칙 교육 내용의 주제화 (2) 음운규칙 교육내용의 일치성 (3) 음운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운율 단위 음운어 및 음운구의 일치성 (4) 다른 언어 기능 및 지식과의 연결 (5)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자료의 개발을 주창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의 의견에 따르면 각 단원의 발음 규칙을 학습하는 것은 학습량에 부담이 되고, 발음 규칙을 단계별로 학습할 때는 초급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원에 제시하기보다는 처음 몇 단원에 발음 부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 단원은 안이라도, 초급, 중급, 고급 교재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제시 유형과 제시 단어, 적용 조건의 범위를 달리하여 발음규칙의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소영, 2018: 33).

이상의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4권의 한국어 발음 교과서의 발음 교육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 발음 교육 부분에는 실효성이나 추가해야 할 점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많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틀 내에서 우리는 다음 4가지 요소만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표 12〉 교재 분석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음 영역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2) 음운체계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3) 음운규칙 내용 및 제시 순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4) 연습 유형 단계는 어떻게 제시되는가? |
|---|

4.1.3. 교재 분석 결과

A. 단위 구성 및 발음 영역

본 연구에서 검토한 네 가지 교재는 모두 뚜렷한 교육 모델과 방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은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이다. 먼저, 각 교재에 단위 구성 순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 교재 단위 구성 순서

교재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단위 구성	어휘 -> 문법과 표현1 -> 말하기1 -> 문법과 표현2 -> 말하기2 -> 듣고 말하기 -> 읽고 쓰기 -> 과제 -> 문화 산책 -> 발음 -> 자기 평가 -> 번역 부분	도입 -> 대화&이야기 (어휘 포함) -> 말하기 연습 (발음 포함) ->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문화 포함), 쓰기 (자기 평가 포함)) -> 문법	기본 어휘 -> 기본 문법 ->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발음 -> 문화	들어 보세요 -> 이렇게 해 보세요 -> 확인해 보세요 -> 준비 연습 -> 단어 연습 -> 문장 연습 -> 대화 연습 -> 정리해 보세요 -> 쉬어 가는 발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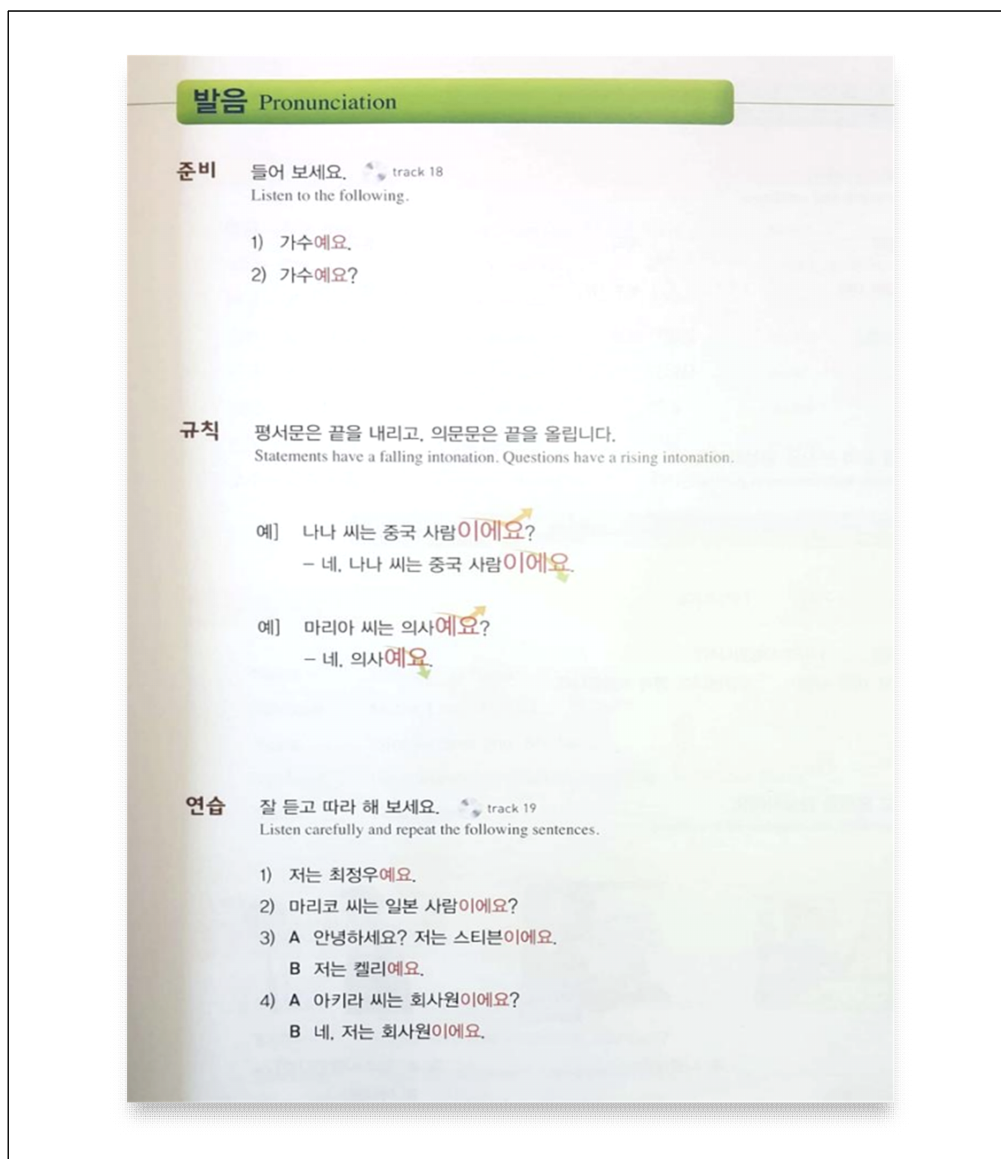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각 교재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서울대 한국어』 교재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의 발음 부분은 어휘, 문법 및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술을 모두 학습한 후 단원의 끝에 있는 별도의 부분으로 제시된다. 한편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발음 부분은 말하기 연습 부분에서 포함된 제시한다. 또한, 위의 세 가지 교재와 달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교재는 발음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재기 때문에 각 단원의 내용은 다양한 예시와 연습활동으로 그 발음을 정확하게 연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으로, 각 교재에 있는 발음 영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대 한국어』는 총 1급부터 6급까지의 6권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

1권~2권은 초급학습자 대상으로 구성되었고 발음에 대한 내용은 연습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다. 발음 영역은 부록 부분에 앞에 발음 내용을 한 페이지 전부를 활용하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서울대 한국어』 발음영역 구성의 실제



『서울대 한국어 1-2』의 각 단원은 발음 영역이 ‘준비→ 규칙 → 연습’ 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과의 어휘나 문법과 관련 있는 음운 현상을 연습하도록 제시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는 CD를 이용해 목표 발음 포함된 단어구나 문장을 들어 보고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였다. 교재에는 발음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학습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아래 규칙이 적용되는 음운적 발음 규칙을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규칙을 내재화하기 위해 듣고 따라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단어와 문장을 2~4개 정도 제시하였고, 대화문을 2개 제시하였다.

둘째, 『재미있는 한국어 1-2』는 총 1급부터 6급까지 6권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1권과 2권은 초급 학습자를 위한 제시하고 발음에 대한 내용은 말하기 연습에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발음을 대상으로, 발음 방법의 간단한 설명과 이를 연습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함께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성 실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재미있는 한국어』 발음 영역 구성의 실제

10 <보기 1>이나 <보기 2>와 같이 연습하고, 친구와 서로 소개해 보세요.
Introduce each other with your classmate as in example 1 or 2.

보기1

베트남, 투안 / 6개월 전 /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투안이 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I am 투안 from Vietnam. I came to Korea six months ago. I am studying Korean at Han-guk University. Nice to meet you.
--	--

보기2

하나은행, 사토 / 1년 전, 한국어를 공부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은행에서 일하 는 사토라고 합니다. 1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I am 사토, working for Hana Bank. I have been studying Korean for one year. Nice to meet you.
----------------------------------	--

① 프랑스, 미셀 / 올해 / 대학원에서 한국 역사를 전공하다

② 러시아, 안드레이 / 3년 전 /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다

③ 아메리카 은행, 아만다 / 9개월 전, 한국에서 살다

④ 현대자동차, 왕샤오칭 / 작년, 한국에서 일하다

발음 Pronunciation

Voicing

관 광 바 보

[k] [g] [p] [b]

When ㄱ, ㄷ, ㅂ, ㅈ are used between voiced sounds like a vowel, a nasal sound, and ㄹ, they are pronounced as voiced sounds.

▶연습해 보세요.

(1) 가: 어디 가요?
나: 집에 가요.

(2) 가: 전공이 뭐예요?
나: 한국어예요.

(3) 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나: 기자가 되고 싶어요.

1급 교재에는 교재의 시작 부분에 한글 익히기라는 내용이 있었다.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발음과 음절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어서 종성규칙과 자음에 대한 설명이 있다. 발음 규칙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자음 규칙과 자음 형성의 개념을 처음에 제시하여 학습자가 하여금 두 가지 기본적인 발음 규칙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본 단원에서는 말하기 연습 부분을 작은 영역으로 나누어 발음 내용을 다루어 보이다. 발음 영역은 '주제->제시->설명->연습'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 단계에서는 본문이나 말하기 연습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발음과 음절 구조를 제시하고 설명 단계에서는 영어 문장으로 발음 규칙의 내용을 설명한다. 연습 내용은 단어, 음절 구

조, 대화체로 제시하였다.

셋째,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검토한 두 교재와 마찬가지로 이 교재에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진 6권으로 포함되어 있다.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발음 영역은 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단원의 일부가 아니라 문화 부분에 추가되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구성 실체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발음영역 구성의 실제

발음
Phát âm

1 Nghe và lưu ý phần gạch chân. CD TRACK 11

(1) 한국 - 한국어

(2) 공무원 - 공무원입니다

(3) 이 사람 - 이 사람은 남 씨입니다

Quy tắc phát âm

Khi âm trước kết thúc bằng phụ âm và âm sau bắt đầu bằng nguyên âm thì phụ âm của âm trước sẽ được đọc nối vào nguyên âm của âm sau.

한국어 [한구거]
 이 사람은 [이 사라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닙니다]

2 Hãy nghe và đọc theo. CD TRACK 12

(1) 저는 회사원입니다.

(2) 이 사람은 풍입니다.

(3) 제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4)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3 Hãy đọc to đoạn văn / từ sau đây. CD TRACK 13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어 선생입니다.

본 교재에서 발음 영역은 ‘도입-〉 제시 설명-〉 연습’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CD를 이용해 3개의 단어나 문장의 발음을 듣는다. 발음이 포함된 어휘나 문장은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

된다. 발음 규칙은 측면에 박스로 표시되어 있으며 베트남어로 설명되어 있다. 아래에 발음 표기가 있는 예의 세 가지 발음을 첨부되어 있다. 연습 단계에서는 단어가 포함된 4개의 문장과 1개의 문장이나 대화로 제시하였다. 교사의 발음이나 CD를 듣고 따라하는 형식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는 살펴보고자 한다. 본 교재는 모두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는 모음과 자음, 한국어의 음절에 대해 다루었고, 2권에서는 발음 규칙과 운소를 다루었다.

〈그림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발음 영역 구성의 실제

1과

7. 우

들어 보세요

누구나?

이렇게 해 보세요

[우]

① 입을 조금만 벌리세요.
 ② 입술을 둥그랗게 만드세요.
 ③ 입술을 조금 앞으로 내미세요.
 ④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최대한 올리세요.

준비연습

1-21

다음은 [우]가 들어 있는 준비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우우우
무무무
우우우
무무무

단어연습

1-22

다음은 [우]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① 우산	우유	백우	무거워요	나무	덕부
② 가구	누나	미누	수박	주소	아주
③ 구두	누구	두부	후추		

22

『외국인 대상 한국어 발음 47』의 단원 구조는 크게 '도입 - 제시 설명 - 연습 - 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를 CD로 이용하여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이어지는 발표 과정에

서는 간단한 문장, 시각적 자료, 예제를 이용하여 규칙을 설명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단어 연습, 문장 연습, 대화 연습의 순서로 다양한 연습 활동을 진행한 다. 마지막으로 연습이 끝난 후 간단한 질문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일부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는 '발음 깨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본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정리하였다. 하나의 단원에서 두 개 이상의 규칙이나 세부 내용이 함께 제시되면 '규칙 1, 2, 3'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아래에 각 단어와 문장의 연습을 정리하였다.

B. 음운체계 비교 분석

『서울대 한국어1-2』, 『재미있는 한국어1-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 등 네 교재가 음운체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음 <표 14>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표 14> 교재에 있는 음운체계 비교 분석

구분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단모음	8모음 체계	8모음 체계	8모음 체계	8모음 체계
이중모음	j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ㅏ, ㅓ, ㅗ, ㅛ, ㅜ	ㅐ, ㅒ, ㅑ, ㅓ, ㅕ, ㅗ, ㅛ, ㅜ	야, 여, 요, 유, 애, 예 와, 워, 왜, 웨, 외, 위
자음	경음 (ㄱ, ㅋ, ㆁ, ㆁ) 격음 (ㆁ, ㆁ, ㆁ, ㆁ) 비음 (ㄴ, ㄴ, ㄴ) 유음 (ㄹ)	ㅂ, ㅃ ㅅ, ㅆ 유음 (ㄹ) 비음 (ㄴ, ㄴ, ㄴ) 평음(ㄱ, ㄴ, ㅂ, ㅅ)	경음 (ㄱ, ㅋ, ㆁ, ㆁ) 격음 (ㆁ, ㆁ, ㆁ, ㆁ) 비음 (ㄴ, ㄴ, ㄴ) 유음 (ㄹ) 평음(ㄱ, ㄴ, ㅂ, ㅅ, ㅈ)	경음 (ㄱ, ㅋ, ㆁ, ㆁ) 격음 (ㆁ, ㆁ, ㆁ, ㆁ) 비음 (ㄴ, ㄴ, ㄴ) 유음 (ㄹ) 연음, 유성음화, 한국어의 음절
받침	겹받침	겹받침	겹받침, 받침 ㄹ, ㅂ, ㅅ	홀받침, 겹받침, 받침 ㄴ, ㄴ, ㄴ,

				받침 ㅂ, ㄷ, ㄱ
억양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 청유문의 억양, 의문문의 억양	평서문의 억양, 의문문의 억양1,2, LH_HL, -거든(요)의 억양, -지요?의 억양	의문문의 억양	의문문의 억양, ‘-(으)르걸’의 억양, ‘-구나’의 억양, ‘-거든(요)의 억양, ‘-다’의 억양

〈표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교재 모두 초급 학습자를 위한 기본 음운 체계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 만이 발음 학습 전용 책이기 때문에 위 교재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부분을 추가하였다. 단모음 체계는 모두 8개의 기본 모음으로 제시하였다.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는 10모음 체계(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요즘 젊은 세대에서 ‘ㅓ’와 ‘ㅛ’의 발음 구분이 어렵다는 현실 발음을 고려했을 때 7모음 체계(ㅏ, ㅓ(ㅛ), ㅗ, ㅜ, ㅠ, ㅡ, ㅣ)로 다루는 것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음에 관해서는 자음 발음의 원리 중 대부분이 경음, 격음, 비음, 유음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1-2』에서는 한글 입문부터 자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 단원의 발음 부분에서는 자음을 강조하지 않고 유음과 비음만 따로 제시하였고 구분해야 하는 자음(ㅂ, ㅃ과 ㅈ, ㅉ)만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에서는 경음, 격음, 비음, 유음 외에 연음, 유성음화, 한국어의 음절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음의 발음 방법의 설명과 제시 순서의 문제이다.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설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을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평음 → 격음 → 경음’의 제시 순서도 고려해야 하는데, 사용 빈도나 가획의 원리, 음성학적인 자음 강도 등 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평음 → 경음 → 격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게다가 4개의 교재에 제시된 받침은 겹받침, 주의해야 할 받침, 탈락 규칙 /ㅎ/ 이고 억양 부분도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 청유문의 억양, 의문문의 억양과 같이 제시하였다.

C. 음운규칙 내용 및 제시 순서

다음으로 4교재 속에서 음운규칙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지 다음 <표 15>와 같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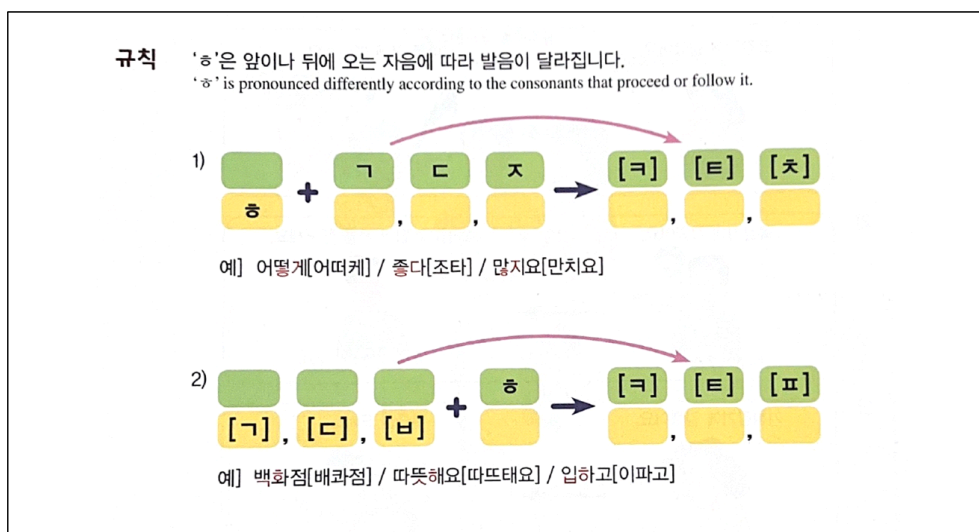
<표 15> 교재에 있는 음운규칙 내용 및 제시 순서 비교

교재명		규칙 내용 및 제시 순서
서울대 한국어	1A, 1B (15 단원)	연음 -> 경음화(1) -> ‘ㅎ’탈락 -> 비음화 -> 경음화(2) -> 유기음화 -> 겹받침의 발음 -> 비음화(2) -> 경음화(3)
	2A, 2B (15 단원)	비음화(1) -> 경음화(1) -> ‘ㅎ’약화 -> 유기음화(1) -> 비음화(2) -> 경음화(2) -> 비음화(3) -> ‘ㄴ’첨가 -> 비음화(4) -> 종성규칙 후 연음 -> 유기음화(2) -> 경음화(3) -> ‘ㅎ’탈락-> 유음화(1) -> 유음화(2)
재미있는 한국어	1급(15 단원)	연음화 -> 격음화 2 (ㅎ의 세 가지 발음) -> 비음화 2 (유음의 비음화 - ㄹ의 비음화) -> 비음화 1 (장애음의 비음화)
	2급(15 단원)	유음화 -> 경음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권(15 단원)	연음 -> 경음화(1) -> ㅎ 축약(1) -> ㅎ 축약(2) -> 경음/격음 비교-> 경음화(2) -> 자음-> 경음화(3) -> -> 유음화 -> 격음화
	2권(15 단원)	비음화 -> 경음화 -> 치조 비음화-> 유음화(1) -> 유음화(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권 (28 단원)	유성음화 -> 음절 -> 홑받침 -> 겹받침 -> 연음
	2권 (19 단원)	발음 규칙편 (경음화1,2,3,4) -> 비음화 1,2 -> 유음화 -> 유기음화 -> ㄴ첨가 -> 개구음화 -> ㅎ 탈락

위 네 교재에서는 모두 음운 규칙을 현상 별로 묶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절에서 제시한 음운 규칙을 바탕으로 <표 15>에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재마다 제시하고 있는 음운 규칙이 상이하다. 『서울대 한국어』는 구개음화를 제외한 모두 음운 규칙을 제시되었다. 『재미있는 한국어』는 /ㅎ/탈락, 격음화 1(장애음)이 제시되지 않았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구개음화, ‘ㄴ’ 첨가를 제외하고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 경우는 자세한 모두 음운 규칙을 제시되었다. 위 4종의 교재에서 음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그림 5> 『서울대 한국어』 발음 규칙 제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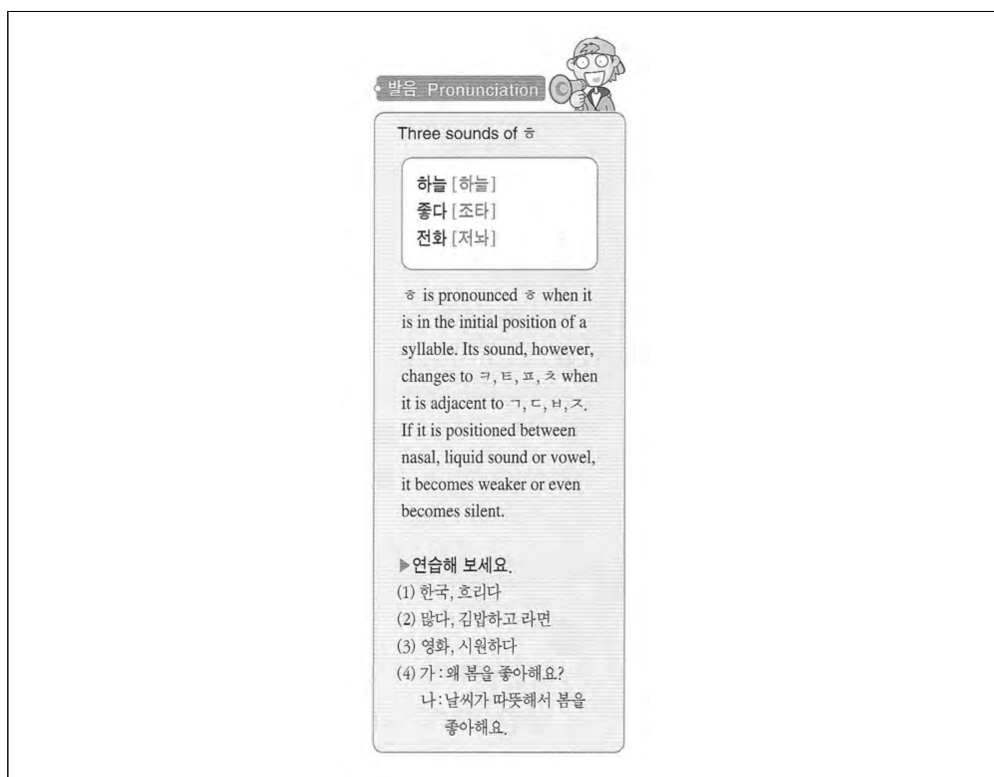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보편적,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연음화, 경음화 1, /ㅎ/탈락, 비음화 1, 격음화 1, 2 등을 다루었다. 초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ㄴ/ 첨가는 ‘역 이름의 발음’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여 서울의 지하철역 이름에 이

27) 동일한 발음 규칙은 각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동일한 음운 규칙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 6, 7, 8> 제시된 ‘ㅎ 축약’을 각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그림 5>는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서 ‘ㅎ 축약’ 발음 규칙을 제시하고 있었다. 발음 규칙을 음절의 위치를 도식화하여 다른 색상으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림 6>은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ㅎ 축약’ 발음 규칙이 ‘ㅎ’ 위치에 따라 설명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림 7>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서 ‘ㅎ 축약’ 발음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ㅎ 축약’ 발음 규칙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는 발음 규칙을 구체적인 설명하여 도식화된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용하는 /ㄴ/첨가 규칙들을 한정적으로 사용하였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음화2에서는 그 중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르’ 뒤에서의 경음화2를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숫자 십(10)의 발음이나, ‘뭇’의 발음을 주제로 하여 관련 규칙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2급에서는 1급에서 제시했던 규칙을 조건별로 세분화하거나 보충하고, 설명 방법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였고, 비음화 2, /ㄴ/첨가 1, 절음 후 연음화, 유음화 1, 2등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다.²⁸⁾

〈그림 6〉 『재미있는 한국어』 발음 규칙 제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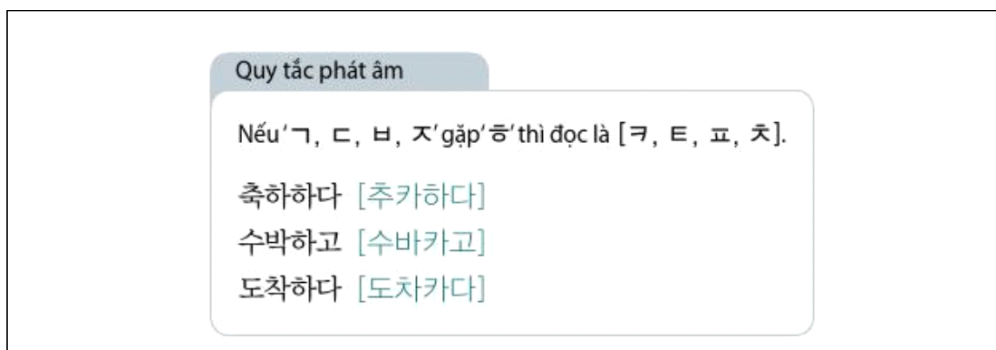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글 익히기에서 제시하였던 연음화 규칙을, 1과에서 말하기 연습 내용인 자기소개와 관련하여 다시 언급하고 있다. 종성 자음과 ‘-이에요, -에서, -어요’ 등의 조사 - 어미와의 연결을 위주로 하였다. 8과에서는 /ㅎ/을 주제로 하여 /ㅎ/의 3 가지 발음 소리에 대해 다루었는데, 하늘

28) 정소여(2018:54)에서 인용.

[하늘], 좋다[조타], 전화[저냐]를 예로 들어 격음화 2와/ㅎ/약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연습해 보세요.’에 제시된 연습 내용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설명한 규칙은 격음화2 (ㅎ+ㄱ, ㄷ, ㅌ→[ㅋ, ㅌ, ㅊ])에 관한 것인데, 연습 문장으로 제시된 ‘김밥하고 라면’은 격음화 1 (평음·격음·경음(-ㅎ)+ㅎ) 대표음의 격음[표, ㅌ, ㅋ]에 해당하는 예이다. 10과에서는 비음화 2 (유음의 비음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종로[종노], 버스정류장[버스정뉴장]’을 예를 들어 ‘ㄴ과 ㄹ 이외의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은[ㄴ]으로 발음한다.’라고 설명하였다. 14과에서는 ‘합니다[함니다]’를 예를 들어 비음화1(장애음의 비음화)에 대해 소개했다. ‘ㄱ, ㄷ, ㅂ 뒤에 공명음(ㄴ, ㅁ, ㄹ)이 이어지면, ㄱ, ㄷ, ㅂ은 비음화 되어[ㅇ, ㄴ, ㅁ]로 발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급 교재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11개 발음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²⁹⁾

〈그림 7〉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발음 규칙 제시 설명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서는 연음, 경음화(1,2,3), 받침 ‘ㄴ’, ‘ㄹ’, ㅎ 축약, 경음/격음 비교, 유음화, 격음화 등을 제시하였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으니까 학습자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서울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2급에서는 1급에서 제시했던 규칙을 조건별로 세분화하거나 보충하고, 설명 방법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였고, 비음화, 연음화, 유음화, 억양 등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29) 정소영 (2018:39)에서 인용.

〈그림 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발음 규칙 제시 설명

규칙 1

동사, 형용사의 받침 ‘ㅎ’이 뒤에 오는 ‘ㄷ, 스, ㄱ’을 만나면 ‘ㅎ’과 ‘ㄷ, 스, ㄱ’이 하나로 합쳐져서 [트, 츠, ㄱ]로 발음됩니다.

예) 싣다<고> [싣<다>고]

많<지>요 [만<치>요]

이<렇>게 [이<러>게]

규칙 2

받침 ‘ㅂ, ㄹ, ㄷ, 스, ㅁ, ㄱ, ㄴ’이 뒤에 오는 ‘ㅎ’을 만나면 ‘ㅂ, ㄷ, 스, ㄱ’과 ‘ㅎ’이 하나로 합쳐져서 [ㅍ, ㅌ, ㅊ, ㄱ]로 발음됩니다.

예) 입<학> [이<ㅍ>학], 넓<혀>요 [널<ㅍ>여요]

말<형> [마<ㅌ>형]

예) 젓<히>세요 [저<치>세요], 앉<히>고 [안<치>고]

축<하> [추<카>], 일<하>요 [일<켜>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서는 가장 먼저 경음화 현상에 대해 필수적 경음화와 수의적 경음화로 나누어 네 단원에 거쳐 연이어 다루고 있는데 네 교재 중에서 가장 비중 높게 다루고 있는 편이다. 또 이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음절 끝소리 규칙, 겹받침, 연음 현상, 유성음화를 자음 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음운 규칙에 속하므로 자음 편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교재에서는 입 모양도 제시하였고 발음 어디서부터 알려주어서 학습자들을 잘 이해하도록 제시하였다.

D. 연습 유형

마지막으로, 『서울대 한국어 1-2』, 『재미있는 한국어 1-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 등 네 교재 속에서 다루는 발음 부분의 연습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16〉과 〈그림

9, 10, 11, 12>와 같다.

〈표 16〉 교재에 있는 연습 유형 비교

교재명	연습 유형
서울대 한국어 1,2	준비, 규칙, 연습으로 구성된다. 과의 어휘나 문법과 관련 있는 음운 현상을 연습하도록 한다.
재미있는 한국어 1,2	연습 방법은 모든 단원에서 동일하다. 해당 발음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나 어절, 문장을 제시하고 읽어보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잘 듣고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하세요. 규칙을 제시한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듣고 판단하세요, 들은 단어 찾아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잘 듣고 표시해주세요,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대화 연습, 정리해 봅시다. 쉬어 가는 발음 이야기.

4종의 교재를 살펴보면, 각 교재에서는 단위마다 자음과 모음 발음, 발음 규칙이 일정한 형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서울대 한국어』와 『재미있는 한국어』는 각각 1가지 과제만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서는 2가지 과제를 구성되어 있다. 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서는 단어 연습, 문장 연습, 대화 연습 등 총 3가지 유형의 연습이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 4종의 교재 속에서 다루는 연습 유형 실재를 다음과 같다.

〈그림 9〉 『서울대 한국어』 연습 유형 실제

연습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track 32
Listen carefully and repeat the following sentences.

1) 생선회를 먹어 봤어요.

2) 방학 동안 뭐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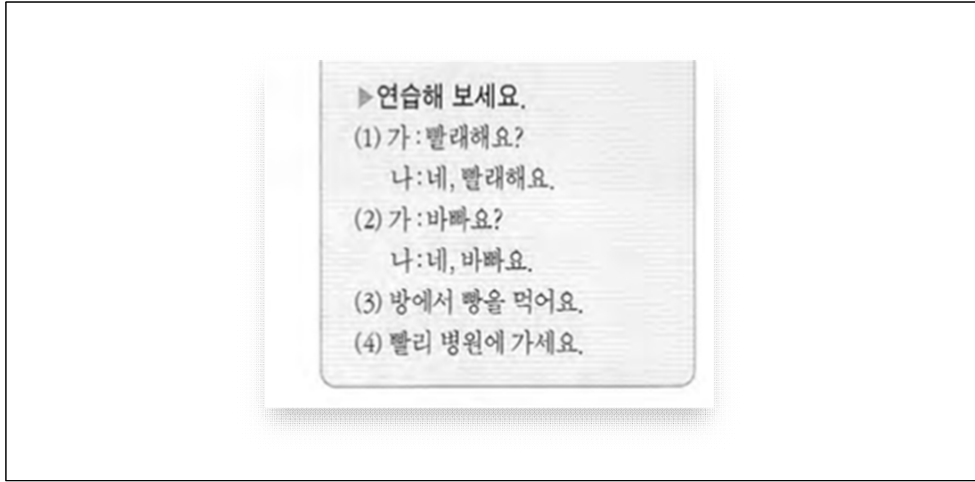
3) 고향에서 친구가 와요.

4) 부모님이 오셔서 공항에 가요.

5) A 같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요?
B 미안해요. 시험이 있어서 갈 시간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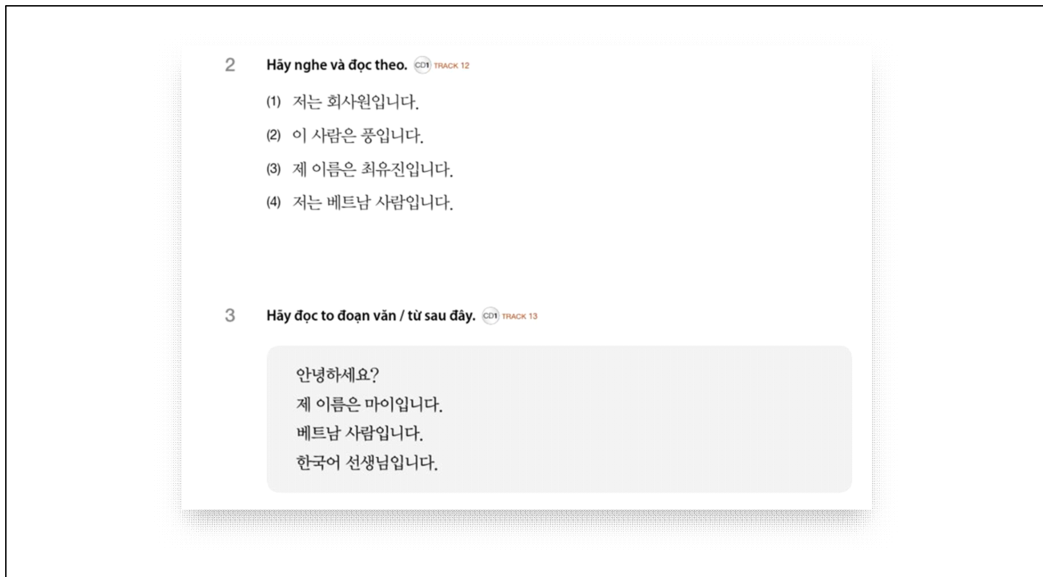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연습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제시 단계에서는 단어와 어절 단위로, 연습 단계에서는 문장과 A,B 대화문, 단락 글을 제시하여 발음 규칙의 적용 단위가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발음이 바뀌는 곳은 잘 읽어보세요'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A, B 대화문 또는 A단락 안에서 기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찾아 표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해당하는 발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역명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0〉 『재미있는 한국어』 연습 유형 실제



『재미있는 한국어』에서 연습 유형은 말하기 부분과 같이 제시되기에 한 단원에 총 3문장 정도를 제시하여 연습량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시청각 자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교재의 말하기 연습에 발음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습 부분은 간단한 A, B 대화를 포함하고 있어 말하기 연습과의 연계성은 있으나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성은 찾을 수 없다.

〈그림 11〉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연습 유형 실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서는 연습 유형 부분이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발음 부분에서 연습 2-3개까지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CD를 듣고 따라 하고 발음 규칙이 작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읽고 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들은 그 단원에 주제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학습자들은 발음도 연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다.

〈그림 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연습 유형 실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은 발음 교재이기에 발음 연습의 내용이 가장 많고, 그 유형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포괄적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가 목표 발음을 어느 정도까지 음성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D에 있는 발음을 듣고 단어별로 정확한 발음을 고른다. 단어 연습에서는 음운학적 조건에 따라 해당 발음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를 배열하고, 참여자들은 CD에 있는 발음을 듣고 어디에서 발음이 달라지는지 주목하며 따라 한다. 대화 연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CD에 있는 발음을 듣고 두 문장의 A, B대화를 따라 한다. 두 번째는 만화를 읽고 대화에 발음 규칙이 적용되는 곳을 표시하고 CD에 있는 발음에 따라 연습한다. 검증 단계에서는 매차시마다 '다

음 문장을 읽고 규칙이 적용되는 곳을 모두 표시하여 잘 듣고 확인한다.', '다음 문장을 잘 듣고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잘 고르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지하철 역 이름입니다.' 차시마다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밑줄 친 단어의 발음법, 축어의 줄임말 /츠크츠크/ 노래하기, 시 읽기'에서 학생들은 아래 문장을 읽고 적절한 그림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활동이 많이 제시하였다.

E. 종합 평가

네 교재 중에 『서울대 한국어1-2』, 『재미있는 한국어 1-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세 교재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활동 외에도 발음, 문화, 연습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취하고 있어 연습이 덜 지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음 영역 학습 유형이 단조롭고 학습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이 부족해 보인다.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발음 부분이 말하기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어 학습량이 부족해 보인다. 그중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은 연습 유형이 다른 교재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주로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준비연습 - 단어연습 - 문장연습 - 대화연습 - 확인연습’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여 연습문제를 다량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연습 유형이 단조롭고, 반복되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흥미를 갖고 다양한 유형을 통해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재에서 모음 발음 방법 및 설명에도 차이가 있다. 『서울대 한국어』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교재에서 발음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이라서 삽화나 입 모형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재미있는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서는 이를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음의 변별을 위해서 모음 분화 조건에 따라 모음사각도도 함께 제시하고, 그림을 활용하여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즉, ‘입술을 조금만 벌리

세요, 혀는 편안하게 두세요’ 같은 모호한 표현은 가능한 삼가야 한다. 게다가,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설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을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 초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들은 발음 교육의 공식 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2장에서 밝혔듯이 베트남 학생들은 어려운 자음과 불분명한 발음 위치로 인해 한국어를 발음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겪는다. 그러므로 베트남 학생들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로 발음, 발음 위치, 그림, 삽화, 설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4.2. 베트남 학습자 요구분석

4.2.1. 설문 조사 대상 및 방법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구글폼 (Google Form)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가한 참여자는 총 85명으로 남성은 16명, 여성은 69명이었다. 본 조사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은 해당 등급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성적을 기준으로 했고 TOPIK 성적이 없는 경우 본인의 해당 수준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였다. 조사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문지의 내용을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초급 학습자는 이를 이해할 수 없기에 설문지는 베트남어로 작성하였다.

〈표 17〉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

설문내용	세부 내용	인수 (명)	비율 (%)
성별	여	69	81.2
	남	16	18.8
한국어 학습 기간	3~6개월	6	7
	6~1년	20	23.5
	1~2년	31	36.4

	2년 이상	28	32.9
한국어 능력 수준 (TOPIK에 의함)	미응시	34	40
	1급	2	2.4
	2급	14	16.5
	3급	15	17.6
	4급 이상	20	23.5
한국어 학습 기관	대학교의 어학당	23	27.1
	대학교 한국어학과	20	23.5
	어학원	13	15.3
	온라인 플랫폼	29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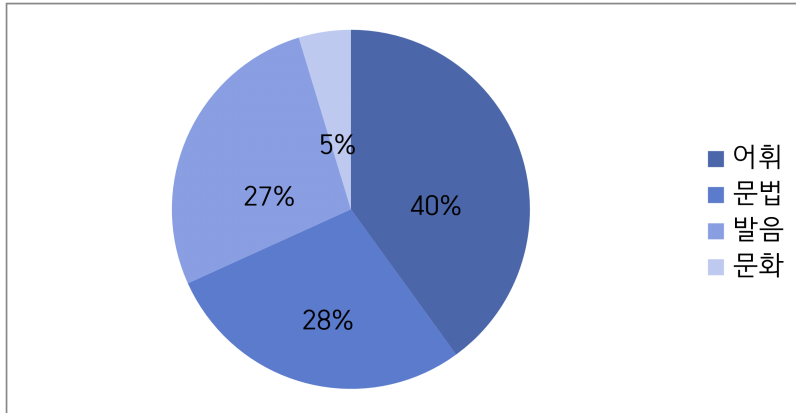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69명이었고 8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남성 18.8%에 불과하다. 대상자의 학습 기간과 관련하여 1~2년 학생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36.4%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2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은 28명으로 32.9%로 나타났다. 6개월~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 20명으로 23.5%, 3~6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 6명으로 7%를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에 의해 평가하였다. 설문 조사 참여자 85명 중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미응시자는 3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하여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초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다. 그중 초급 수준(1급과 2급 합격자 포함) 학생은 총 16명으로 18.9%를, 중급 수준(3급 합격자 포함) 학생은 15명으로 17.6%를 나머지는 중 -고급 수준 (4급 이상 합격자 포함) 학생은 20명 23.5%를 차지하였다. 한국어 학습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29명으로 34.2%를 차지하였다. 한국어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올란인 플랫폼은 유튜브(49.3%), 틱톡(25.3%), 앱(1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12%)였다. 대학교의 어학당은 23명, 대학교 한국어학과는 20명, 어학원은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4.2.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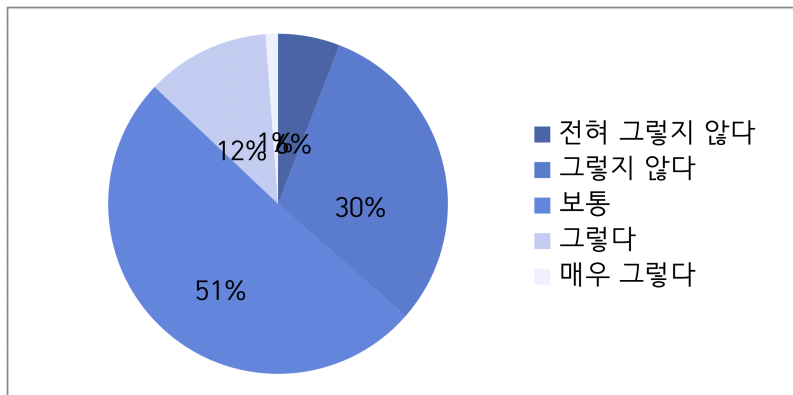
(1) 한국어 발음에 대한 관련 조사

〈그림 13〉 한국어 발음 접근 조사에 관한 응답률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4명의 응답자가 어휘이라고 답하였으며, 4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서 나머지는 문법 28%, 발음 27%, 문화 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가장 많이 중요한 것을 보일 수 있다. 한국어 발음은 중요하지만 어휘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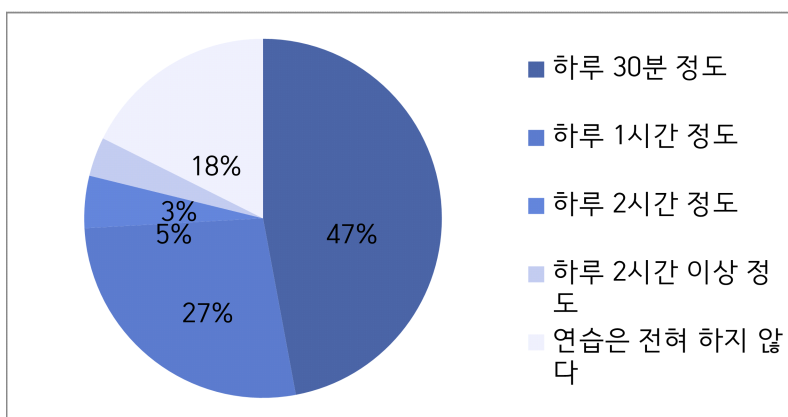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어 발음의 만족도에 관한 응답률



〈그림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만족도를 “보통”으로 대답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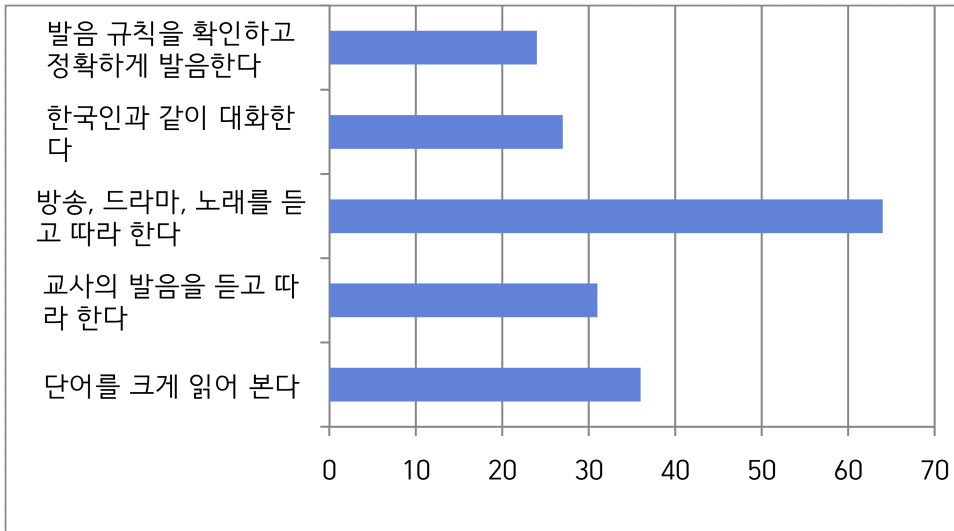
다”는 대답은 30%, “그렇다”는 12%, “전혀 그렇지 않다”는 6%, “매우 그렇다”는 1%로 나타났다. 한국어 발음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응답하기에 앞서 한국어 발음을 만족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한 문항 2에서 만족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많았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1명이었고, 그중 11명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 베트남 학습자들이 자신의 한국어 발음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한국어 발음 연습 시간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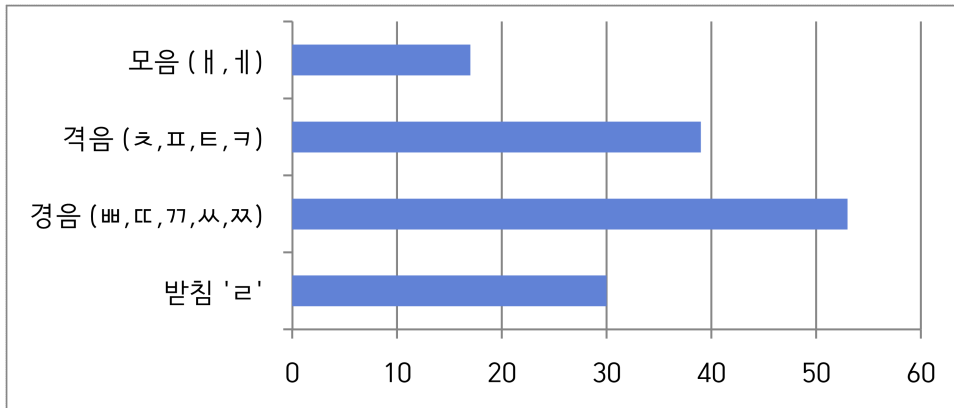
위에 〈그림 15〉와 같이 학습자의 하루 한국어 발음 연습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 85명 중 ‘하루 30분 정도’가 47%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하루 1시간 정도’가 27%, ‘연습 전혀 하지 않다’가 18%, ‘1시간 이상’이 8.2% 그 뒤를 차지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은 발음을 연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학습자의 발음 연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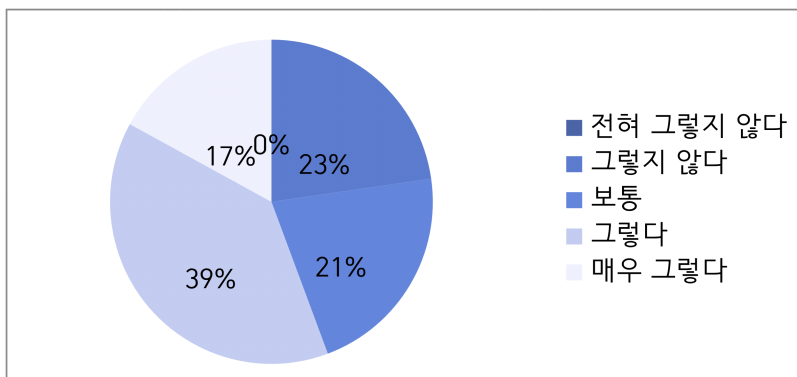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을 한국어 발음 연습할 때 방송, 드라마, 노래를 듣고 따라한다는 응답이 75.3%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단어를 크게 읽어 본다는 42.4%로 2위,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한다'라고 응답이 36.5%로 3위, 한국인과 같이 대화한다는 응답이 31.8%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발음 규칙을 잘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응답이 28.2%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할 때 연습하기 위해 듣기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발음 연습 활동은 읽기 → 알아보기 → 듣기 → 따라하기 과정을 통해 수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17〉 한국어 발음의 어려운 부분의 분포



한국어를 발음할 때 학습자가 어떤 음절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ㅂ, ㅃ, ㅅ, ㅆ, ㅈ, ㅉ”와 같은 경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응답자 53명으로 62.3%를 차지했다. 이어서 격음 “ㄷ, ㅌ, ㅍ, ㅊ”는 39명 45.9%, 받침 “ㄹ”은 30명 35.3%, 모음 “ㅏ, ㅑ”는 17명 20%를 그 뒤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5명 중 2명은 위에 언급한 음절 외에도 이중모음과 한국어 억양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 이야기할 때 본인이 잘못된 발음을 발견했냐고 하면서 잘못 발음했다고 답한 사람은 63명으로 74.1%를 차지했고, 정확한 발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6명으로 7.1%를 차지했으며, 18.8%인 16명은 제대로 발음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림 18〉 학습자의 발음 오류 평가



한국어 발음 오류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응답하기에 앞서 한국어 발음 때문에 대화할 때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오해했던 적이 있냐고 질문한 문항 6에서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없다고 학습자보다 많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4명 39%,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5명 17%를 차지했다. 그중 “보통”이 19명 23%, “그렇지 않다”가 17명 21%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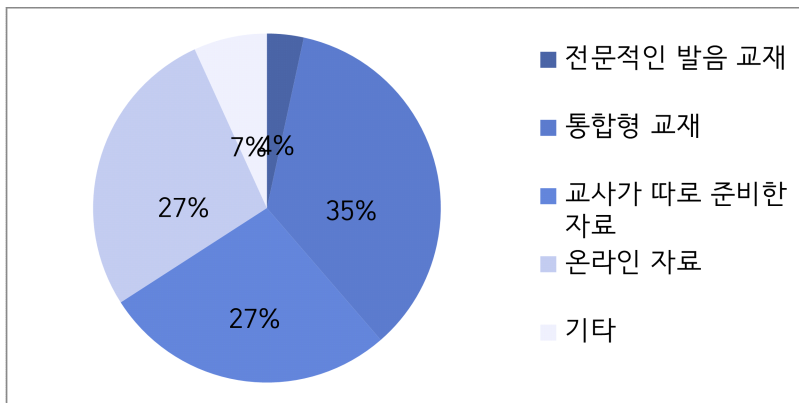
한국어 발음을 잘못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 대상자 85명 중 6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12명은 ㅈ, ㅉ, ㅊ 등의 음절 발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음절의 발음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짜장면, 친구, 착각하다, 춘천, 청량리역, 자, 차, 김치찌개, 경치, 도착, 진로와 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오류를 발생한다. 또한, 60명 중 11명은 ‘ㄹ’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힘을 내다, 일(1), 이(2), 팔(8), 물, 음료수, 혈, 별, 꿀, 인원, 설날, 알뜰과 같은 단어이다. 그중 3명은 ‘ㄴ, ㄷ, ㅂ’의 발음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방, 빵, 피, 팔과 같은 단어이다. 8명은 경음과 격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3명은 받침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에 관한 요구

다음으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에 관한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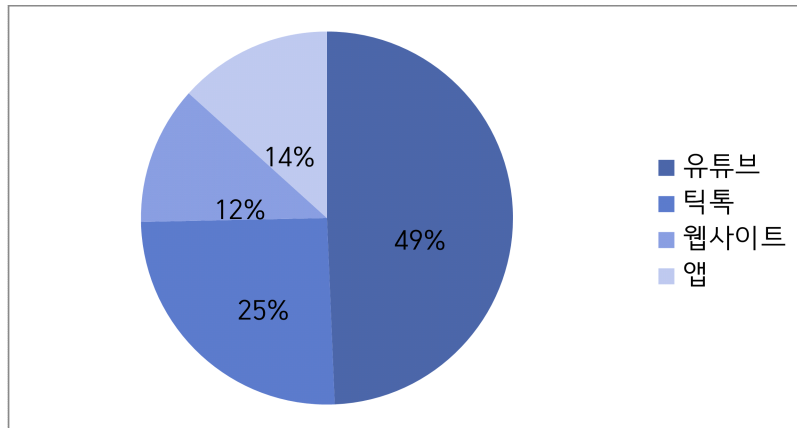
한다.

〈그림 19〉 발음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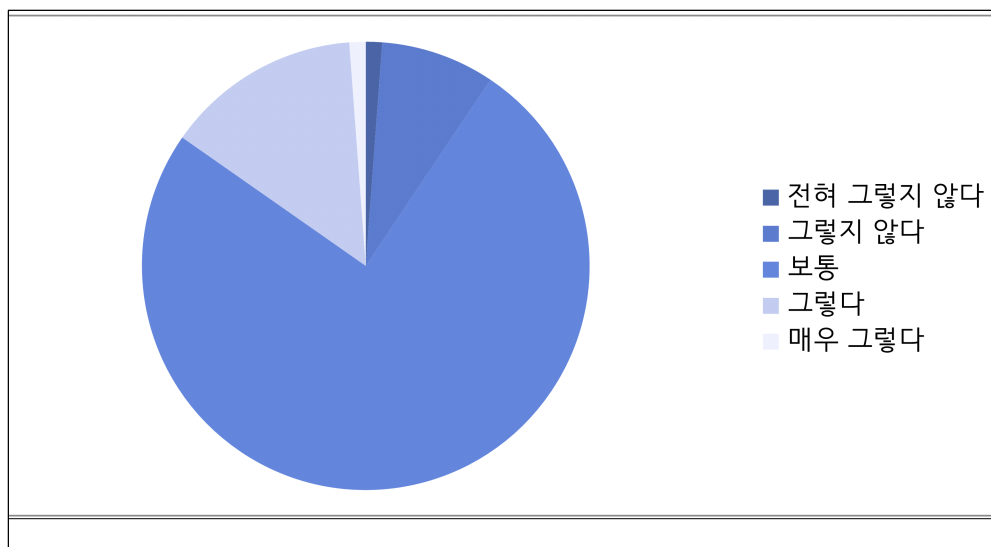
발음을 학습할 때 자료를 사용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관련된 조사 결과는 82명의 응답자는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96.4% 차지한다. 그중에 31명은 통합형 교재를 사용하고 24명은 교사가 따로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고 24명은 온라인 자료, 3명은 전문적인 발음 교재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3명은 한국인과 같이 연습한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이 발음 자료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적인 발음 교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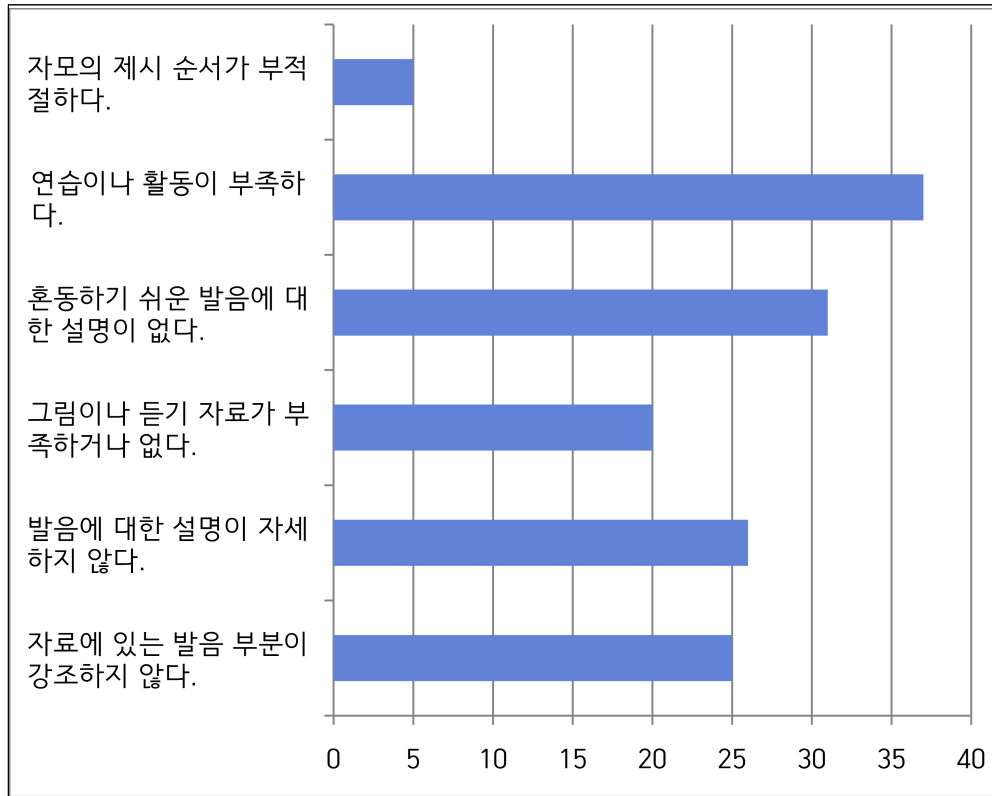
〈그림 20〉 온라인 자료 접근한 매체



한국어 발음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자료를 활용 여부에 대해 85명 중 75명이 응답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체는 유튜브로 49%의 참여자가 응답하였다. 틱톡은 25%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앱 14%, 웹사이트 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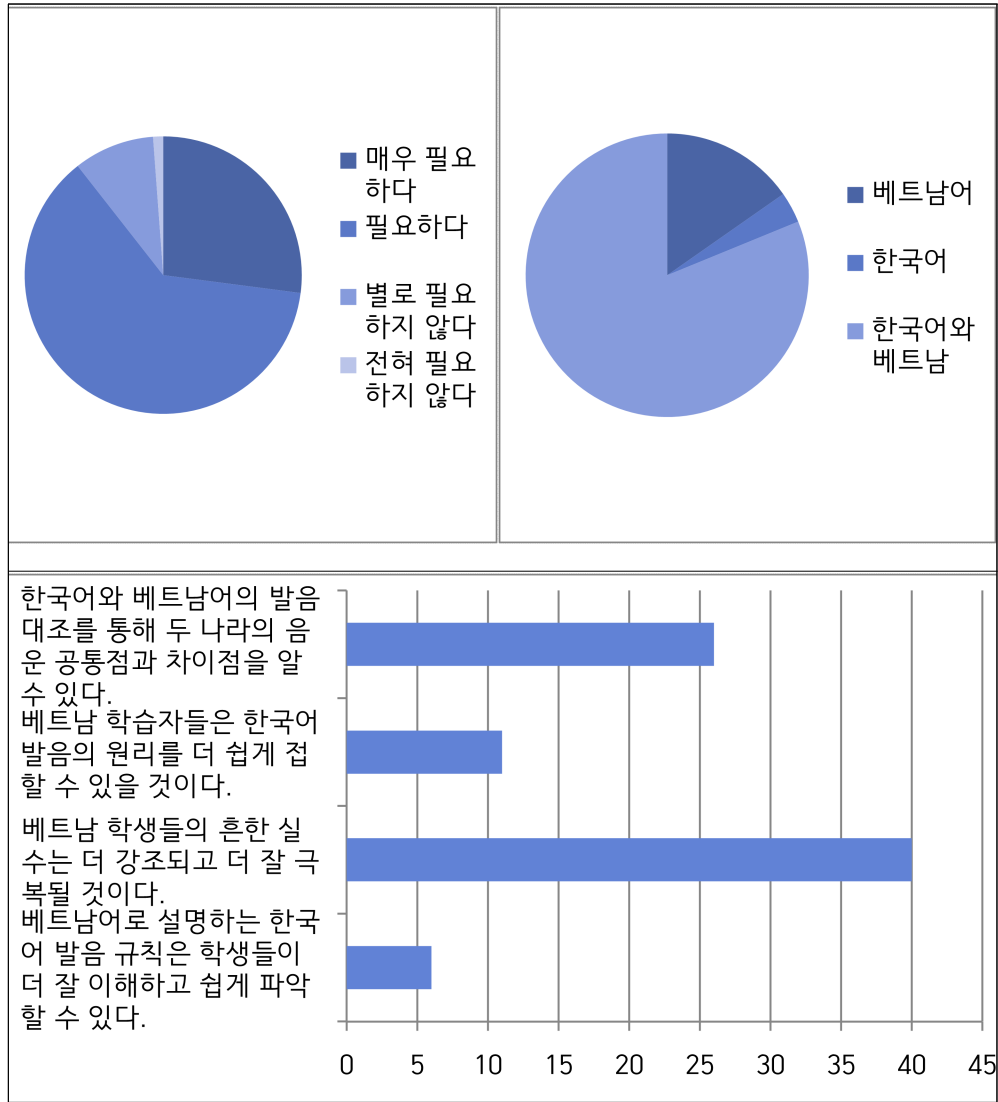
〈그림 21〉 발음 자료 만족도와 이유





〈그림 21〉을 보면 한국어 발음 자료를 사용할 때 대부분 학습자들이 자료의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75.3%로 가장 높았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한국어 자료에 대한 “만족하다”라는 대답은 14.1%, “만족하지 않는다” 8.2%, “매우 만족하다” 1.2%, “전혀 만족하지 않다” 1.2%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 학습자료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이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혼동하기 쉬운 발음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발음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자료에 있는 발음 부분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림이나 듣기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음의 제시 순서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학생들이 현행 발음학습자료에 불만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며,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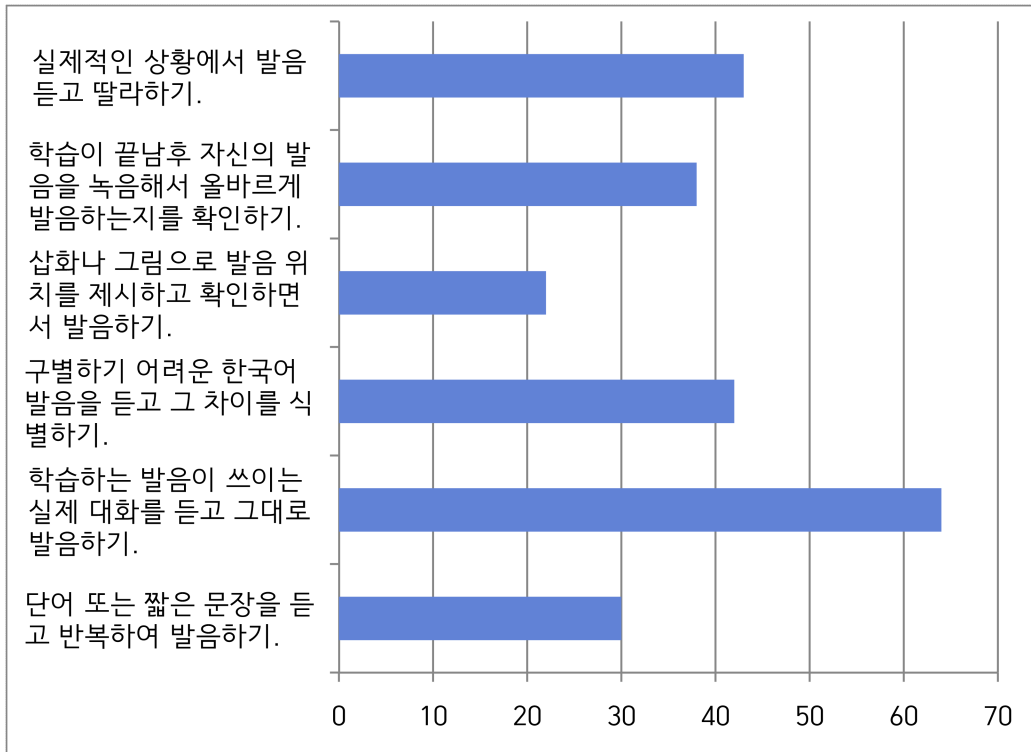
〈그림 2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의 필요성과 이유



이 문항의 목적은 학습자들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에 대해 필요성을 조사하는 데에 있다. “필요하다”라는 응답자의 수는 53명으로 62.4%를 차지하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자의 수는 23명으로 27.1%를 차지한다. 나머지 9명으로 10.6%는 “필요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률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학습자들을 위한 발음 교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교재가 어떤 언어로 쓰면 되냐는 질문에 관련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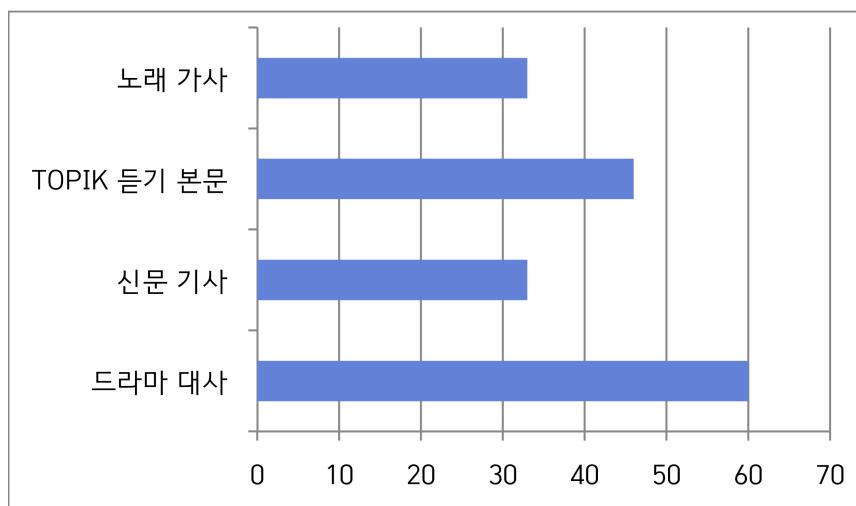
사 결과는 69명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설명해 준다고 답하였고 이는 81.2%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어는 13명 15.3%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한국어는 3명 3.5%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설명해 주는 교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를 필요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85명 중 40명의 응답자는 베트남 학생들의 혼한 실수는 더 강조되고 더 잘 극복될 것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6명의 응답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발음 대조를 통해 두 나라의 음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1명의 응답자는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의 원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인해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로 설명하는 한국어 발음 규칙은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베트남 학생들의 일반적인 오류를 강조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발음 교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자주 내는 잘못된 발음을 개선하고 싶고, 교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한국어 발음 교재의 선호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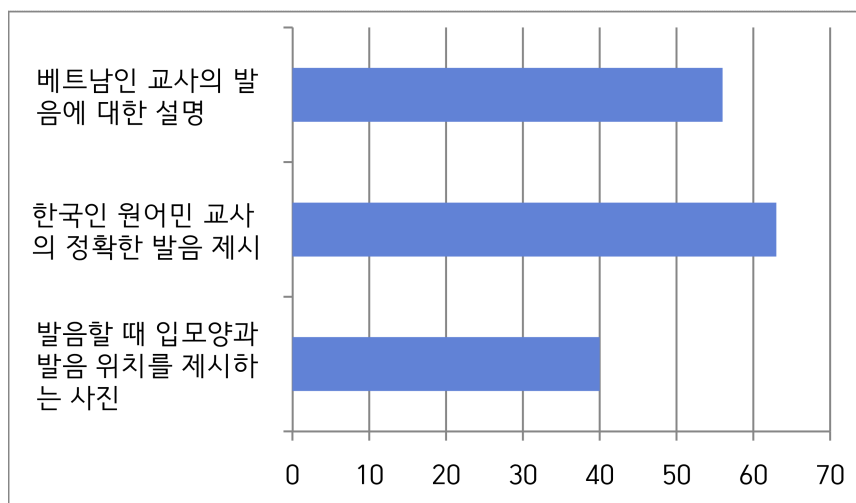
〈그림 23〉에서 한국어 발음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할 때 베트남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학습하는 발음이 쓰이는 실제 대화를 듣고 그대로 발음하기”가 64명(7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발음 듣고 따라하기”가 43명(50.6%), “구별하기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듣고 그 차이를 식별하기”가 42명(49.4%), “학습이 끝난후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서 올바르게 발음하는지를 확인하기”가 38명(44.7%), “단어 또는 짧은 문장을 듣고 반복하여 발음하기”가 30명(35.3%), “삽화나 그림으로 발음 위치를 제시하고 확인하면서 발음하기”가 22명(25.9%)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을 통해 자신의 발음을 듣고 연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발음 학습에는 듣기 능력 학습도 함께 제공되므로 학습자는 다양한 음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잘 활용하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한국어 발음 교재의 교정하는 내용



〈그림 24〉에서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발음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드라마 대사”가 60명 70.6%로 가장 많았다. TOPIK 듣기 본문은 46명(54.1%)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노래 가사”와 “신문 기사”는 33명(38.8%)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내용 유형을 선정할 것이다.

〈그림 25〉 한국어 발음의 시청각 자료



〈그림 25〉에서 한국어 발음 교재에 필요한 시청각 자료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한국인 원어민 교사의 정확한 발음 제시”가 63명(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 교사의 발음에 대한 설명”이 56명(65.9%), “발음할 때 입모양과 발음 위치를 제시하는 사진”이 40명(47.1%)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사람들은 각 지역의 원어민에 따른 어휘 발음 차이(사투리)의 예시가 추가되면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 교재에 대해 원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 23명의 학습자가 응답하였으며,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재에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실용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과 실제 대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발음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재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제시해야 한다. 응답자들은 발음 학습이나 발음을 교정하는 것은 내용이 교재에 드라마 대사와 노래 가사와 같은 재미있는 연습이나 게임과 같이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요구하였다. 또한, 응답한 학습자들은 교재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발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은 비디오 형식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결합된 시청각 자료를 필요로 한다.

셋째, 혼동하기 쉬운 발음과 베트남인 학습자가 자주 나타내는 발음 오류에 대한 베트남어로 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음의 변별이 어려운 발음 목록을 제시하고 최대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습자는 베트남어로 설명하는 것 외에도 발음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입 모양 이미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비음화와 유음화 등의 발음 원리를 교재에 담아야 한다. 통합교재에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지만 불완전하고 분명하지 않아 학습자들이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각 교과와 부록으로 방언의 사투리가 추가해주면 발음 학습자들의 흥

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은 서울의 기본 발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투리를 알게 되면 어려운 발음들을 배우는 것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교재를 통해 억양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도 있다.

4.3.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실험

1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할 때 평음, 경음, 격음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해보고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에 어떠한 오류가 있을지 예측해 보았다. 한편, 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 중에 자음의 경음, 격음과 받침 'ㄹ'이 특히 어려워서 확인해야 실험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평음, 경음, 격음 발음 오류 파악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의 발음 규칙의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연습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4.3.1. 실험 대상 및 방법

실험의 참가자는 총 8명으로 남자 2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H대학교 언어교육원 학생이며, 초급 수준의 학습자로 한국어 학습 기간은 3개월 미만이다. 실험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8〉 베트남인 초급 실험자의 정보

학습자	나이	성별	국적	한국어 학습 기간	수준
1	20	여	베트남	3개월	초급
2	19	여	베트남	3개월	초급
3	20	남	베트남	3개월	초급
4	21	여	베트남	3개월	초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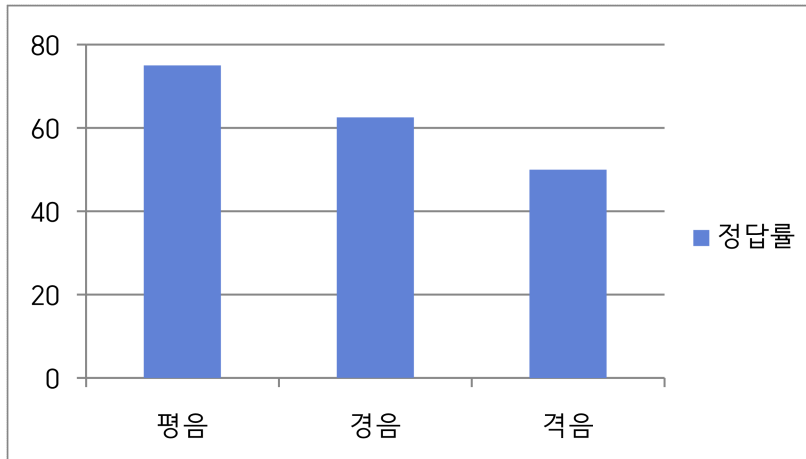
5	20	여	베트남	3개월	초급
6	20	남	베트남	3개월	초급
7	22	여	베트남	3개월	초급
8	20	여	베트남	3개월	초급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한국어 자음의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였고 실험 수행자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실험 단어를 들려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실험은 참가자는 단어들을 듣고 그에 알맞은 어휘를 골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와 3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체계 비교 결과를 통하여 실험자들이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 인지를 어려워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음운 소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실험하는 것 외에도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기본 발음 규칙에 대한 인식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간단한 발음 규칙이 포함된 짧은 문장을 읽도록 요청하였고 오류를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3.2. 실험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 발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자들은 실험지에 제시된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듣기를 통해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6〉 초급 학습자의 평음, 경음, 격음 발음 정답률



초급 학습자들의 평음 정답률은 75%, 경음 정답률은 62.5%, 격음 정답률은 50%로 평음 → 경음 → 격음 순으로 평음의 정답률이 가장 높고 격음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초급 학습자의 인지 실험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9〉 초급 학습자의 인지 실험 오류 유형

제시 유형	평음		경음		격음	
오류	경음	격음	평음	격음	평음	경음
오류 횟수	1	1	2	1	3	1
요류율	12.5	12.5	25	12.5	37.5	12.5

학습자는 평음과 경음, 격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평음을 경음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1명 12.5%, 격음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1명 12.5%로 나타났다. 경음을 평음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2명 25%, 격음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1명 12.5%로 나타났다. 격음을 평음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3명 37.5%, 경음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1명 12.5%로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들의 인지 실험 결과를 보아 초급 학습자들은 평음, 경음, 격음 중 평음을 가장 많이 선택하다. 이는 평음-경음, 평음-격음의 대립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실험의 활동 2에서 학습자들에게 평음, 경음, 격음이 포함된 단어들

을 읽어보라고 했다. 실험 결과는 학습자 8명 중 2명만이 평음 ㅅ(시간) 과 경음 ㅆ(쓰레기)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3명은 ㅈ(지금), ㅉ(찌개), ㅊ(처음)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명의 학습자가 ㄱ(가격), ㄲ(깜박), ㅋ(커피)를 구분했고 5명이 ㄷ(대학), ㅌ(딸기), ㅍ(택배)를 구별할 수 있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평음을 발음할 때 잘 발음할 수 있는데 비해 경음과 격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었다.

다음은 초급 학습자들의 발음 규칙 오류를 살펴본 결과를 알아보겠다.

〈표 20〉 초급 학습자의 발음 실험 문항

조사 문항	발음 규칙
1. 봄에 날씨가 좋아서 꽃이 많이 피었어요.	연음화, ㅎ 탈락, 구개음화
2. 한국에서 교통이 편리해요.	연음화, 유음화
3. 설날에 가족들과 같이 뭐해요?	유음화, 연음화, 구개음화
4. 생일날에는 짬뽕을 먹을까요?	유음화, 연음화
5. 선생님께서 벌써 출발하셨어요?	연음화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통해서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유음/ㄹ/의 발음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실험 자료는 유음 현상을 포함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하여 운율 단위에서 유음 규칙 실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실험은 연음화, 구개음화, ㅎ 탈락 등이 포함된 어휘를 통해 학습자의 다른 발음 규칙의 적용을 시험하였다. 연음의 적절한 발음 실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연구자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중인 한국인 화자 2명이 청지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8명 중 2명은 /ㄹ/ 소리를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었고, 4명은 상황에 따라 발음할 수 있었고, 2명은 이 소리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음화와 유음화와 같은 발음 규칙을 살펴보면 유음화 ‘ㄹ+ㄴ’인 경우 [ㄹ]로 발음이 바뀌는 발음이 오류가 가장 많이 겨 초급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했던 유음화 ‘설날’ 발음할 때 [선날]으로 발음 오류를 범한 경우가 6명으로 경음 발음 오류 중 80%의 비율을 차지했고 [설랄]으로 발음한 경우가 2명으로 20%의 비율을 차지했다. 유음화 ‘편리’ 발음할 때 [편리]로

발음 오류를 범한 경우가 5명으로 경음 발음 오류 중 70%의 비율을 차지했고 [펼리]로 발음한 경우가 3명으로 30%의 비율을 차지했다. 유음화 '생일날' 발음할 때 [생일 날]로 발음 오류를 범한 경우가 4명으로 경음 발음 오류 중 50%의 비율을 차지했고 [생일랄]로 발음한 경우가 4명으로 50%의 비율을 차지했다. 연음화의 발음은 오류를 범한 경우가 4회로 5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8명 중 4명은 '출발하셨어요'[출바라써쎌요]라는 단어를 [출발하쎌서요]로 발음했고 3명은 '먹을' [머글]라는 단어를 [먹은]으로 발음했다.

4.3.3. 실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위 시험을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 발음과 발음 규칙의 인지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은 평음, 경음, 격음 중 평음을 잘 구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발음하였는데 평음-경음, 평음-격음의 대립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급 학습자들은 발음 규칙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유음/ㄹ/의 발음 오류를 많이 범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안과 발음 교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V.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개발 방안

4장에서의 교재 분석과 학습자의 요구분석 및 실험을 통해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시 베트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였고 한국어 발음할 때 범한 오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교재 개발 방향과 교재 내용, 그리고 단원의 실제 구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5.1.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의 방향

5.1.1. 발음 교재 개발 원리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초급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한국어 구어체를 정확하게 발화하는 목적으로 교재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향해야 할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안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초급 학생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은 어떤 음절에 발음하기가 어렵다. 그 이후로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강의를 제공한다.

둘째, 교과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발음은 단순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해하고 외워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습을 많이 해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으므로 발음 규칙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발음 교재는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학습자 스스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학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잃으면 쉽게 학습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하여 학습자가 발음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재는 자음, 모음, 발음 규칙의 비교를 통해 두 언어의 차이를 제시해

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두 언어에 발음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 외에 보조교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율학습에서 학습에 대한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본 교재와 함께 교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보조교재가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1.2. 발음 교재 내용 구성에 관한 개발 방향

첫째, 초급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사나 학습자가 통합교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발음에 관한 내용 제시가 간단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시청각적인 자료 부족과 단조로운 유형의 활동 그리고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발음 간의 대조 언어학적 지식 부족과 모국어로 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나 학습자 모두 발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 상태의 교재로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를 갖춘 발음 교재 개발은 꼭 필요하다. 다음 발음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이 명확히 제시된 단계별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는 양국의 음운을 대조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베트남어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성인 학습자로서 모국어의 습득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인식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간섭현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에는 비슷한 발음도 많기에 양국의 음운을 대조하여 설명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이는 발음의 원리를 설명해야 하는 초급 단계에서 한국어로 설명한다면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해 발음 교재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양국의 음운 대조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발음 방법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은 모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야 한다.

셋째, 발음 요소를 제시할 때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기준을 갖고 신중하

게 제시해야 하며, 교재의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순서는 베트남어의 발음 학습 순서와도 같아서 학습자들에게 익숙하며, 쉬운 데서 어려운 순서로 배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을 제시할 때는 이런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교재 단원은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발음의 기초가 되고 사용 빈도가 높은 모음 발음과 초성 자음 발음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모음 발음은 단모음(1) /ㅏ/, /ㅑ/, /ㅓ/, /ㅕ/, /ㅗ/, /ㅛ/; 단모음(2) /ㅕ/, /ㅛ/; 이중모음(1) /ㅑ/, /ㅓ/, /ㅓ/, /ㅕ/, /ㅕ/, /ㅕ/; 이중모음(2) /ㅑ/, /ㅓ/, /ㅓ/, /ㅕ/, /ㅕ/, /ㅕ/과 같은 4단원으로 제시해야 한다. 초성 자음 발음 중에 초급에서는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ㅌ/, /ㅌ/에서 오류 발생률이 높았다. 삼지적 관계가 있는 자음을 제시하는데 조사와 실험 결과에 따르며 학습자가 쉽게 인지하고 발음하는 평음, 경음, 격음 순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음운 규칙은 베트남어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는 모든 음운 규칙에서 비교적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 음운 규칙 적용의 위계 관계를 보면 자음군 단순화는 연음,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보다 먼저 적용된다. 따라서 위계상 뒤에 적용되는 다른 음운 규칙보다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동감 있는 그림이나 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발음 방법의 설명을 도와야 하고, 이때 초급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5.2. 베트남 학습자 대상 한국어 발음 교재의 내용

5.2.1. 교수요목 설계

A. 목차 체계

4장에서 선정한 한국어 교재의 발음 영역 내용과 실시한 한국어 발음 교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의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목차예시

	단원	제목	학습내용
모음	1	단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2	단모음 2	[ㅛ, ㅝ]
	3	이중모음 1	[ㅗㅓ, ㅑㅓ, ㅓㅓ, ㅕㅓ, ㅛㅓ, ㅜㅓ]
	4	이중모음 2	[ㅓㅗ, ㅓㅑ, ㅓㅓ/ㅓㅛ/ㅓㅜ, ㅓㅕ, ㅓㅛ]
자음	5	평음 1	[ㅂ, ㄷ, ㄱ]
	6	평음 2	[ㅅ, ㅈ]
	7	경음 1	[ㅃ, ㄸ, ㄲ]
	8	경음 2	[ㅆ, ㅉ]
	9	격음	[ㅍ, ㅌ, ㅋ, ㆁ]
	10	비음	[ㅁ, ㄴ]
	11	유음	[ㄹ]
	12	후음	[ㅇ]
	13	자음 구별 1	[ㅂ, ㅃ, ㅍ]
	14	자음 구별 2	[ㄷ, ㄸ, ㅌ]
	15	자음 구별 3	[ㄱ, ㄲ, ㅋ]
	16	자음 구별 4	[ㅈ, ㅉ, ㆁ]
음절	17	음절 구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18	홀받침 1	받침 [ㅂ, ㄷ, ㄱ]
	19	홀받침 2	받침 [ㅁ, ㄴ, ㅇ]
	20	홀받침 3	받침 [ㄹ]
	21	겹받침	자음군 단순화
	22	연음	
음운규칙	23	유음화	
	24	경음화	
	25	격음화	
	26	구개음화	
	27	/ㅎ/ 탈락	
	28	/ㄴ/ 첨가	
억양	29	문장 종료에 따라 억양 1	평서문
	30	문장 종료에 따라 억양	의문문

		2	
	31	문장 종료에 따라 억양 3	명령문

B. 단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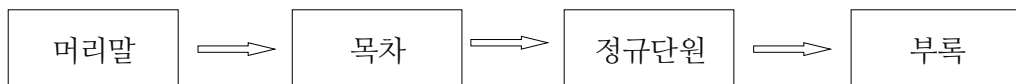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재의 단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단원 구성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발음 교재의 전체적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그림 27〉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전체적 구성



또 한편으로 본 교재는 모듈식 구성을 택하였기에 모듈에 따라 단원 구성 및 학습 내용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전개 된다.

〈그림 28〉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의 단원 구성



5.2.2. 단원의 실제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발음 교재의 개발 원리와 단원 구성의 체계를 실제로 교재의 자음 13단원과 23단원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 있는 교재 실제 이미지는 칸바(Canva) 앱을 통해 만들어진 다. 대화 이미지는 칸바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된다.

13

ㅂ ㅍ ㅈ

학습 목표

평음 ‘ㅂ’, 경음 ‘ㅍ’, 격음 ‘ㅈ’를 구별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Mục tiêu bài học

Nắm được sự khác nhau giữa âm thường ‘ㅂ’, âm căng ‘ㅍ’, âm bật hơi ‘ㅈ’ và phát âm chính xác.

들어 봅시다

hãy nghe đoạn hội thoại sau

남: 수빈아, 어디 아파요?

여: 네, 어제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요.

남: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발음 규칙

quy tắc phát âm

자음 ‘ㅂ, ㅍ, ㅈ’은 세기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 앞은 휴지 앞에 ‘ㅍ’을 발음할 때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ㅂ’을 발음할 때 휴지가 조금 흔들리며 ‘ㅈ’을 발음할 때 휴지가 많이 흔들린다.

Phụ âm ‘ㅂ, ㅍ, ㅈ’ được phát âm khác nhau tùy thuộc vào cường độ của không khí. Khi phát âm ‘ㅍ’ trước khăn giấy mỏng, khăn giấy hầu như không bị rung. Khi phát âm ‘ㅂ’ thì khăn giấy hơi rung nhẹ và khi phát âm ‘ㅈ’ khăn giấy bị rung rất nhiều.

ㅂ

ㅍ

ㅈ

30) ‘학습 목표’와 ‘제시 설명’ 부분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동시 제시하여 대화, 사진으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림 30〉 13단원의 ‘확인’과 ‘연습’ 부분 실제³¹⁾

확인해 봅시다
nghe và phát âm theo



바 빠 파
 비 뵤 피

벌벌 뵤뵤 펄펄
 방법 뵤래 피곤

바람이 불어요.
 파란색 팬이 필요해요.
 나쁜 기억이 빨리 잊어버려요.

연습해 봅시다
luyện tập



•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Hãy nghe và đọc lại đoạn văn sau.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기 전 눈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이나 나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눈이 피곤할 때는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TOPIK 기술문제 읽기 41회)

• 대화해 봅시다. Hãy luyện nói theo ví dụ sau.

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어요? (볶음밥을 먹다)
 나: 볶음밥을 먹었어요.

1. 가: 꽃이 피면 벌이 어때요?
 나:(바쁘다).

2. 가: 방에서 뭐해요?
 나:(뽕을 먹다).

3.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비가 오다).

31) ‘확인’과 ‘연습’ 부분에서는 듣고 따라하기, 예시보고 대화하기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1〉 13단원의 ‘추가’와 ‘정리’ 부분 실제³²⁾

추가 부분
phụ lục

아래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저작권이 있는 한국어 발음 영상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Dưới đây là video về cách phát âm tiếng Hàn thuộc bản quyền của Trường học tiếng thuộc Đại học Yonsei. Quét mã QR để xem video.



더 알아봅시다. Hãy xem video sau và luyện tập thêm



정리해 봅시다
kiểm tra

• 잘 듣고 맞는 내용을 고르십시오. Hãy nghe và chọn đáp án đúng.

1. 발	팔	빨
2. 볼	풀	뵐
3. 바	파	뵘



32) ‘추가’에서는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은 쉽게 접근하도록 QR코드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은 정리하기 위해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32〉 23단원의 ‘학습 목표’와 ‘제시 설명’ 부분 실제³³⁾

23

유음화

학습 목표

유음화 발음규칙 파악할 수 있다.

Mục tiêu bài học

Nắm được quy tắc Nhũ âm hoá trong tiếng Hàn.

들어 봅시다
hãy nghe đoạn hội thoại sau



미나: 마이 씨, 설날에 뭐해요?

마이: 가족과 함께 전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미나: 재미있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요.



발음 규칙
quy tắc phát âm

유음화는 'ㄴ ㄹ'이나 'ㄹ ㄴ'의 연쇄가 'ㄹ ㄹ'로 바뀌는 현상으로 위의 예에서 보듯이 'ㄴ ㄹ'이 'ㄹ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와 'ㄹ ㄴ'이 'ㄹ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있다.

Nhũ âm hoá là hiện tượng nếu âm tiết phía trước kết thúc bằng patchim 'ㄴ', âm tiết phía sau bắt đầu là phụ âm 'ㄹ' thì patchim 'ㄴ' sẽ biến thành 'ㄹ' và ngược lại.

설날
[ㄹ ㄹ]

전라
[ㄹ ㄹ]

33) 23단원의 ‘학습 목표’와 ‘제시 설명’ 부분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동시 제시하여 대화, 그림으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발음 규칙은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고 도식화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림 33〉 23단원의 ‘확인’과 ‘연습’ 부분 실제³⁴⁾

확인해 봅시다
nghe và phát âm theo

편리
연락
원래

실내
일년
물냉면

연락 해 주세요.
발 냄새는 곤란해요.
물놀이를 갈까요?

연습해 봅시다
luyện tập

-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Hãy nghe và đọc lại đoạn văn sau.

어제는 여자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기타를 못 치지만 여자 친구를 위해 치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기타를 연습해서 생일날 기타를 쳤습니다.

(HOT TOPIK I 실전 모의고사 4회 초급 읽기 44번)

-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Hãy viết cách phát âm theo ví dụ sau.

예: 원래 --> [월래]

1. 반려 --> []	6. 찰나 --> []
2. 난로 --> []	7. 달님 --> []
3. 연락 --> []	8. 칼날 --> []
4. 분리 --> []	9. 틀니 --> []
5. 단락 --> []	10. 불놀이 --> []

34) 23단원의 ‘확인’과 ‘연습’ 부분에서는 듣고 따라하기,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쓰기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4〉 23단원의 ‘추가’와 ‘정리’ 부분 실제³⁵⁾

**추가 부분
phụ lục**

아래는 유튜브 채널 Hello Korean 안녕, 한국어 저작권이 있는 한국어 발음 영상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Dưới đây là video về cách phát âm thuộc bản quyền của kênh Youtube Hello Korean. Quét mã QR để xem video.



더 알아보시다. Hãy xem video sau và luyện tập thêm

ㄹ, ㄹᄇ, ㄹᄃ + [ㄹ]

.....

[ㄹ] + ㄹ, ㄹᄇ, ㄹᄃ

**정리해 봅시다
kiểm tra**

• 유음화 발음해야 되는 곳에 표시하세요. Hãy đánh dấu vào từ vựng bị nhũ âm hoá trong các câu sau.

1. 연락처 좀 적어 주세요.
2. 그건 좀 곤란하네요.
3. 물냉면 주세요.
4. 버스는 편리해요.
5. 생일날에 친구랑 놀러 가요.



35) 23단원의 ‘추가’에서는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은 쉽게 접근하도록 QR코드로 제시하였다. 그다음은 정리하기 위해 과제를 제시하였다.

VI. 결론

외국어 학습에서 실제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발음이다. 하지만 발음은 많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부분 한국어 학습자들은 중-고급 단계에 이르러도 발음에 대한 오류를 자주 범한다.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음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교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배우고 익힌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음 교정 방안이나 발음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이 필요하나 이들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관련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한 후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발음 교육 관련 서적에 연구를 통해 발음과 관련된 이론, 발음 교육, 한국어 발음 교육을 제시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재 내 발음 규칙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여 이를 항목화한 뒤 3·4장 연구 내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두 언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였다. 비교 순서는 두 언어의 모음, 자음, 음절, 음운규칙 등이었다.

제4장에서는 교재 분석 결과 및 학습자 요구분석, 초급 학습자 오류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국내 주요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어 통합교재와 발음 교재를 대상으로, 발음 규칙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3가지 통합 교재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외에 발음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을 살펴보았다. 발음 교재는 발음에 집중하여 만든 전문 교재이므로, 이 안에 담겨 있는 발음 영약, 음운체계, 발음 규칙, 순서와 구성, 연습 유형, 등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 설문 조사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진행하였고 베트남인 초급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발음 교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이론과 3,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교재 개발 원리, 발음 교재 내용 구성에 관한 개발 방안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맞는 발음 교재 개발을 위해 발음 교재를 분석하고,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교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 모두가 발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음을 위한 전용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현황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 발음에 대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한국어 발음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개발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현화 외(2022),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기우종(2014),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수업 모형 개발: 발음 ‘차이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우(2019),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방안: 평음, 경음, 격음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상희(2010),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가영, 이정민(2018), 한국어 발음 어떻게 가르칠까, 도서출판 연락.

박지영(2010),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은(2019), “한국어 파찰음 발음 지각과 산출에 대한 모국어 전이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2016),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은(2008), 이주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국어국문학 제150호.

부티흐영(2022),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동영상 발음 수업 설계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소영(2010), “한국어통합 교재를 통한 발음 교육 고찰”, <시학과 언어학>18, 시학과언어학회, pp.119~138.

손경애(202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의 개발 방향 연구”, 호남대학교, 중앙어문학회.

신지영, 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염선정(2017), “한국어 통합 교재의 음운 규칙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현(2014), “한국어 교재의 발음·음운 영역에 대한 분석적 고찰”, 동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이효숙(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일본인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현정(2013), “한국어 교재의 발음 교육 방안 연구 -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32, 한성어 문학회, pp.489~511.

윤미라(2021), “초급 한국어 기관 통합 교재의 발음 편 개선 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21-5,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학회, pp.163~180.

왕웨이(2021),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응웬비타오짱(2021), “베트남어 성조를 활용한 한국어 어두 평폐쇄음 발음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응웬탄남(2017),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 파찰음과 마찰음의 발음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소영(2018), “교재 분석을 통한 한국어 발음규칙 교육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정선(2020),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규칙 적용 양상 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정순(2012a),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 제119차 한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국어 교육학회, pp.1-10.

최정순(2012),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pp. 295-324(30쪽).

홍종선 외(2015),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Guan Sijia(2021),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정 교재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UA NGUYEN MINH THAO(2019),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HAM THI HUYEN TRANG(2017),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른 한국어 발음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Đặng Thị Lanh 외(2010). Tiếng Việt 1 – Tập Một.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Đoàn Thiện Thuật(1980). Ngữ âm tiếng Việt. Hà Nội, Đại học và Trung học Chuyên nghiệp.

Đoàn Thiện Thuật – Nguyễn Khánh Hà – Phạm Như Quỳnh(2003). A Concise Vietnamese Grammar (For Non-Native Speakers). Hà Nội, Thế giới Publishers.

Nguyen Chi Hoa(2013). Nội dung và phương pháp giảng dạy ngữ âm tiếng Việt thực hành cho học viên quốc tế.

분석 대상 교재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재미있는 한국어1. 서울: 교보문고, 2008.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재미있는 한국어2. 서울: 교보문고, 200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1A, 1B, 2A, 2B. 서울: 문진미디어, 20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 1, 2. 서울: 한글파크, 2009.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서울: 한국국제교류 재단, 2009

부 록

〈설문지〉

베트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을 위한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PHAM THU TRANG 입니다. 본 설문지는 '베트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을 위한 조사'를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만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PHAM THU TRANG

**개인 정보 관련 문항*

1. 성별: 남/여
2.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었습니까?
 - a. 3개월~6개월
 - b. 6개월~1년
 - c. 1년~2년
 - d. 2년 이상
3. 한국어 수준
 - a. 미응시
 - b. 1급
 - c. 2급
 - d. 3급

4.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 a. 대학교의 어학당
- b. 대학교 한국어학과
- c. 어학원
- d. 온라인 플랫폼 (youtube, tiktok, website,...)
- e. 기타

**한국어 발음에 대한 광련 문항*

1. 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a. 어휘.
- b. 문법.
- c. 발음.
- d. 문화.

2. 현재 본인의 한국어 발음에 만족합니까?

- a. 전혀 그렇지 않다.
- b. 그렇지 않다.
- c. 보통.
- d. 그렇다.
- e. 매우 그렇다.

3. 보통 몇 시간동안 발음이나 말하기를 연습합니까?

- a. 하루 30분 정도 연습.
- b. 하루 1시간 정도 연습.
- c. 하루 2시간 정도 연습.
- d. 하루 2시간 이상 연습
- e. 연습은 전혀 하지 않다.

4. 발음을 어떻게 연습합니까?

- a. 교실에서 단어를 크게 읽어본다.

- b.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한다.
- c. 방송, 드라마, 노래를 듣고 따라 한다.
- d. 한국인과 같이 대화한다.
- e. 발음 규칙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f. 기타.

5. 한국어 발음할 때 어떤 발음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a. 받침‘ㄹ’.
- b. 경음 (ㅼ, ㅆ, ㅍ, ㅈ, ㅊ)
- c. 격음 (ㅅ, ㅆ, ㅍ, ㅈ)
- d. 모음 (ㅏ, ㅑ)
- e. 기타.

6. 한국어 이야기할 때 본인이 잘못된 발음을 발견했습니까?

- a. 잘 모른다.
- b. 많이 발견해서 고쳤다.
- c. 아예 발견하지 못한다.

7. 발음 때문에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 a. 전혀 그렇지 않다.
- b. 그렇지 않다.
- c. 보통.
- d. 그렇다.
- e. 매우 그렇다.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관련 문항**

1. 발음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 a. 전문적인 발음 교재.
- b. 통합형 교재.
- c. 교사가 따로 준비한 자료.

d. 없다.

e. 기타.

2. 사용하는 발음 자료에 대해 만족합니까?

a. 전혀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3. 만족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자료에 있는 발음 부분이 강조하지 않다.

b. 발음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다.

c. 그림이나 듣기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다.

d. 혼동하기 쉬운 발음에 대한 설명이 없다.

e. 연습이나 활동이 부족하다.

f. 자모의 제시 순서가 부적절하다.

g. 기타.

4.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매우 필요하다.

b. 필요하다.

c. 별로 필요하지 않다.

d.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a. 베트남어로 설명하는 한국어 발음 규칙은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b. 베트남 학생들의 흔한 실수는 더 강조되고 더 잘 극복될 것이다.

c.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의 원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d.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발음 대조를 통해 두 나라의 음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e. 기타.

6. 발음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할 때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a. 단어 또는 짧은 문장을 듣고 반복하여 발음하기.

b. 학습하는 발음이 쓰이는 실제 대화를 듣고 그대로 발음하기.

c. 구별하기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듣고 그 차이를 식별하기.

d. 삽화나 그림으로 발음 위치를 제시하고 확인하면서 발음하기.

e. 학습이 끝난 후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서 올바르게 발음하는지를 확인하기.

f. 실제적인 상황에서 발음 듣고 따라하기.

g. 기타 _____

7.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발음을 교정하고 싶습니까? (교재에 나온 텍스트 유형 복수 응답 가능)

a. 드라마 대사

b. 신문 기사

c. TOPIK 듣기 본문

d. 노래 가사

f. 기타 _____

8. 어떤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발음할 때의 입 모양과 발음 위치를 제시하는 사진.

b. 한국인 원어민 교사의 정확한 발음 제시.

c. 베트남인 교사의 발음에 대한 설명.

d. 기타 _____

9. 한국어 발음 교재에 기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세요.

〈실험표〉

발음 실험표

- 다음 단어를 듣고 알맞은 단어 골라보세요. Hãy nghe và chọn đáp án đúng.

- | | | |
|------|---|---|
| 1. 사 | 싸 | |
| 2. 자 | 짜 | 차 |
| 3. 방 | 뺑 | 팡 |
| 4. 가 | 까 | 카 |
| 5. 다 | 따 | 타 |

- 읽으세요. Hãy đọc các từ và câu sau.

- | | | |
|-------|-----|----|
| 1. 시간 | 쓰레기 | |
| 2. 지금 | 찌개 | 처음 |
| 3. 방안 | 빨리 | 평일 |
| 4. 가격 | 깜박 | 커피 |
| 5. 대학 | 딸기 | 택배 |

1. 봄에 날씨가 좋아서 꽃이 많이 피었어요.
2. 계단 이용 시 꼭 난간대를 잡아주세요.
3. 설날에 가족들과 같이 뭐해요?
4. 오늘 점심에는 짬뽕을 먹을까요?
5. 선생님께서 벌써 출발하셨어요?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nunciation Textbook for Vietnamese Students

Pham, Thu Tra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nunciation textbook for Vietnamese students,, targeting beginner learners.

In Chapter 1,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clarified, the contents of related previous studies were summarized, and the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were presented.

Chapter 2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research in books related to pronunciation education, theories related to pronunciation, pronunciation education, and methods for presenting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were summarized. In this chapter, we also looked at the status of Vietnamese students' Korean pronunciation. Afterward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ronunciation rules in the textbook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as organized, categorized, and used as the standard for the research content in Chapters 3 and 4.

In Chapter 3, the phonological systems of Vietnamese and Korean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order of comparison was the vowels, consonants, syllables, and phonetic rules of the two languages.

Chapter 4 summarizes the results of textbook analysis, learner needs analysis, and beginner learner error experiment results. First, we analyzed the content of pronunciation rule education in integrated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pronunciation textbooks developed by major domestic universities. The focus was on analyzing three integrated textbook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Fun Korean', and 'Korean for Vietnamese'.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pronunciation textbook 'Korean Pronunciation for Foreigners 47'. Since the pronunciation textbook is a professional textbook created with a focus on pronunciation, the pronunciation elixir, phonological system, pronunciation rules, sequence and structure, practice types, etc. contained in it were also referred to. Next, we analyzed the needs of Vietnamese learners through a survey and conducted an experiment on the errors that Vietnamese beginner students often make when pronouncing Korean. Based on such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pronunciation teaching materials was necessary.

In Chapter 5, based on the theory summarized in Chapter 2 and the analysis results in Chapters 3 and 4, the principles of pronunciation textbook development and the actual development plan for the composition of pronunciation textbook content are presented.

Chapter 6 presents a summary and summary of what was previously discussed.

In this paper, we analyzed pronunciation textbooks to develop a pronunciation textbook suitable for Vietnamese learners and looked into the

mistakes that Vietnamese students often make when pronouncing Korean.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eeds analysis, directions were presented on how and in what way pronunciation textbooks would be created.

【Key words】 Korean Education, Pronounce Education, Korean Pronunciation, Contrastive Analysis, Error Analysis, Korean Pronunciation Book